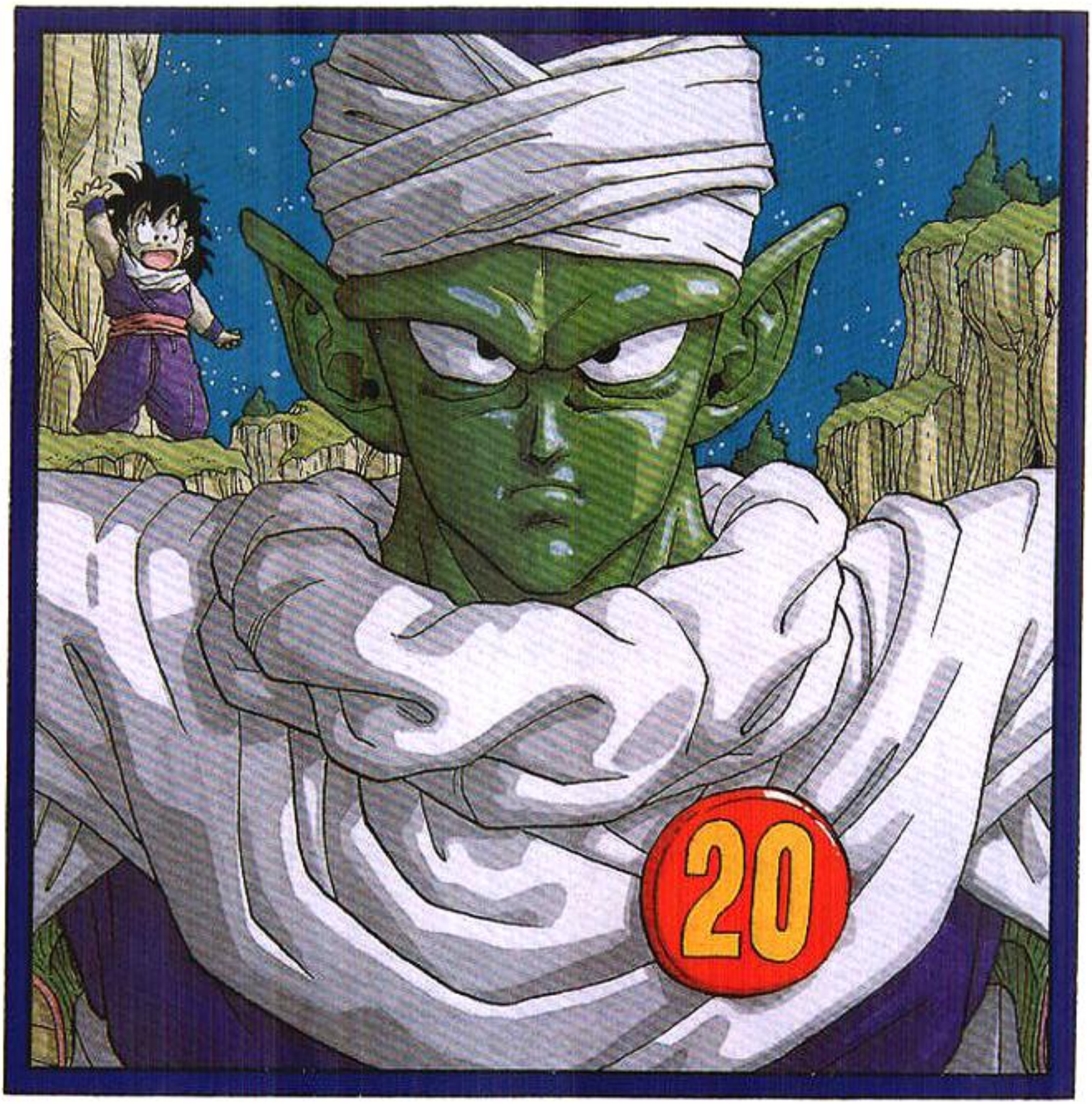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20 지구의 운명을 건 초결전!!

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나는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혹은 흥미가 없어져버릴 때까지, 그림으로 계속 그려내는 버릇이 있다. 어렸을 때, 말을 갖고 싶어서 매일 말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말은 포기하고, 다음에는 원숭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 등등,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렸다. 덕분에 말썽쟁이였긴 했어도, 그림만은 잘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버릇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직업이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0편 지구의 운명을 건 초결전!!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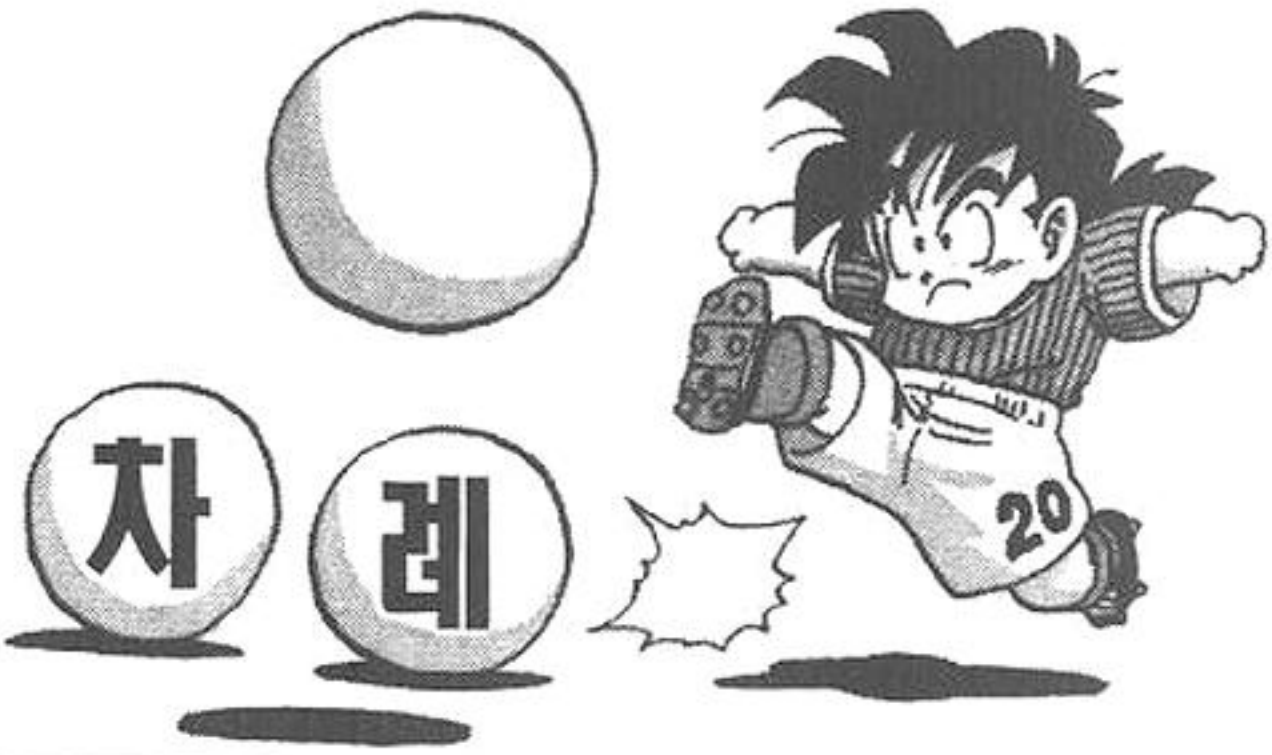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피콜로 대마왕이 나타나 오공과 대결. 대격투 끝에 오공이 승리한다. 3년 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손오공이 마침내 우승한다. 그후 지구는 사이어인의 습격을 당한다.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의 죽음 앞에 오공의 분노가 폭발!! 마침내 전투는 오공 대 베지터의 1대1 대결로…!!

DRAGON BALL 20

지구의 운명을 건 초결전!!



제229화 지구의 운명을 건 초결전!! ····· 7
제230화 위험한 3배 계왕권! ····· 22
제231화 레드존의 전투! ····· 36
제232화 「달」 ····· 50
제233화 원기옥 발사는 가능한가!? ····· 64
제234화 원기옥은 어떻게!? ····· 78
제235화 파리목숨 손오공!! ····· 92
제236화 희미한 저항 ····· 106
제237화 다시 한 번 원기옥!! ····· 120
제238화 원기옥의 행방!! ····· 134
제239화 엉망이 된 전사들 ····· 148
제240화 최후의 도박!! ····· 162
표지 페이지 대특집 XIX ····· 177

DRAGON BALL

제229화
지구의 운명을 건 초결전!!



베지터는 오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그 파워는 전투력을 2배로 만든
오공의 계왕권조차도
능가할 정도였다.
과연 오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웃기는…. 자포자기해서
맛이 간 거냐…?
아니면 전투력을 더욱
업시킬 여유라도
있다는 거냐!?



오공은 이 정도로 위기에
몰리면서도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손오공의
몸속에도 흐르는, 전투를
좋아하는 사이어인의
피 때문이었다….

초엘리트 사이어인의 압도적인 파워를…!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군…. 네놈의 황천길 선물로 보여주마….

어디 한번 보여봐….

크크크…. 그 밥맛 떨어지는 비웃음도 이젠 끝이다….

하—앗!!

퍽



지직…
지직…
지직…
지직…
쿠아아아앙
화이이앙
!!
콰릉콰릉
어…, 엄청난 기다….
마… 마치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우!


하앗
—!!


거대한
태풍이다
…!!


구…
구름도
사라졌네…!
대기의
흔들림이
멈췄어…!


오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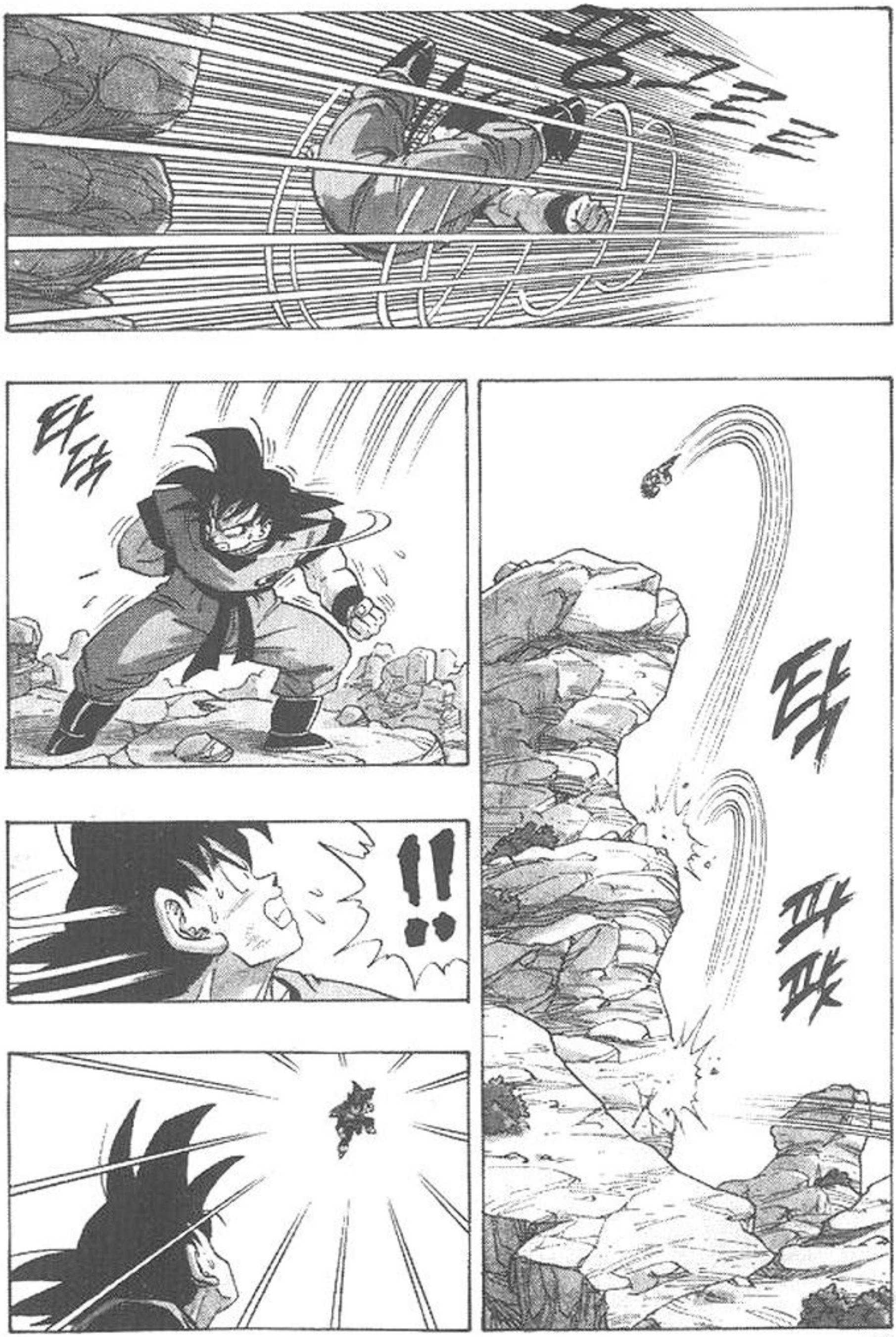

고


카카로트… !!
끝났다… !




빠직
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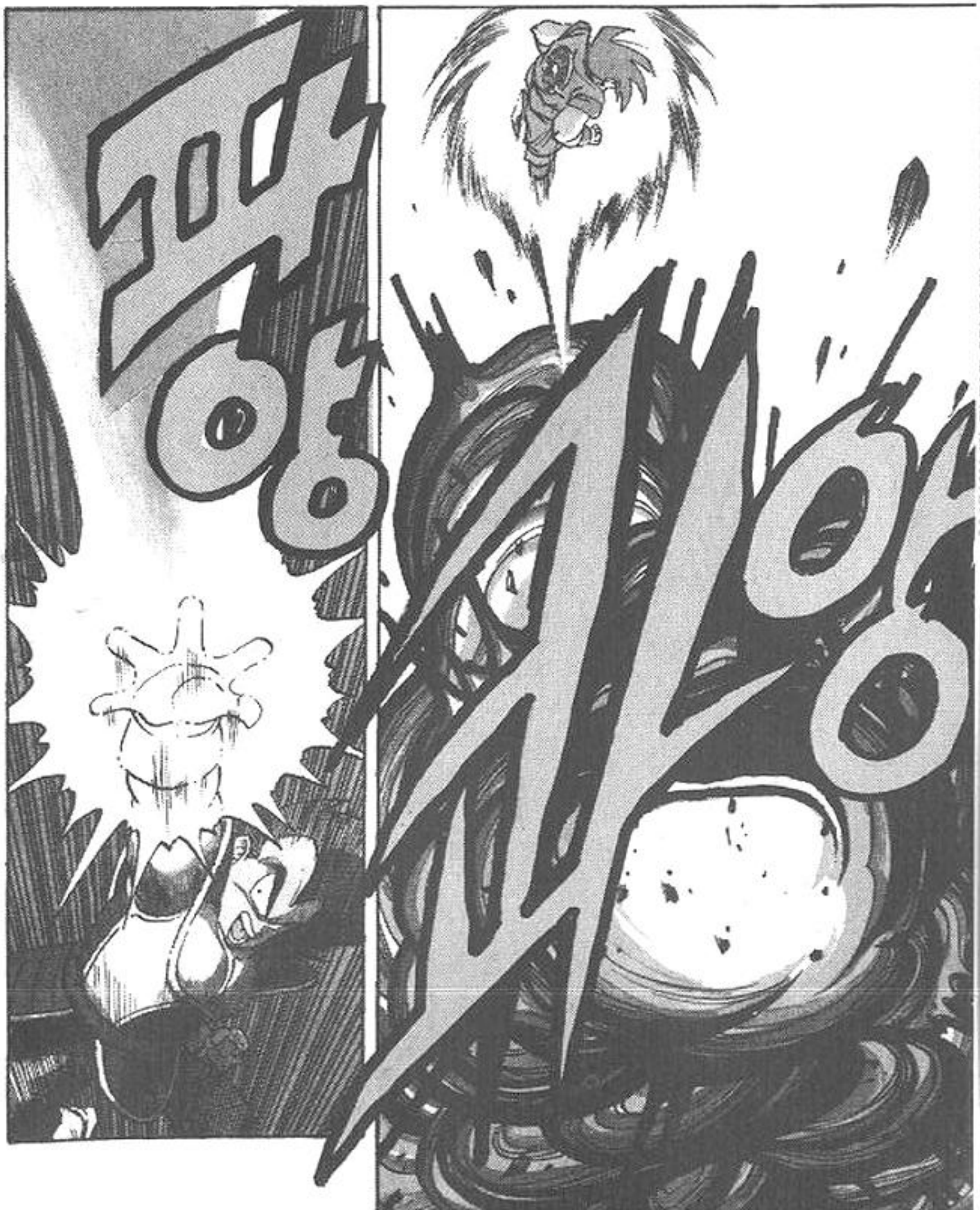

쿡!!
뒤다,
이 멍청아!



탁
파팟
!!


계왕권 2배!!
!!


히히


GOOD


!!
우!!


후후후 ….
좋아, 아주 잘했어…. 잘도 피했구나…!
헉
헉
슈———웃
타닥
닥
제길~!!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다….
2배의 계왕권조차도 상대가 안 되다니….











다음은, 제230화 위험한 3배 계왕권!

자…, 계왕권을 3배까지
올리면 내 몸이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왜 그래,
카카로트?!
빨리 덤벼라!

하하하!
벌써 실력이
바닥났나?

어쨌든
시도해볼 수밖에.
이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넌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난 사이어인
중에서도 넘버원
실력자였어.

네놈이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결국 넌 낙제생
하급전사.
저승갈 시간이
참새 눈물만큼
길어졌을 뿐이라구.

크…, 큰일났네…,
사이어인놈이
오공보다
압도적으로
더 강해…,

나…, 난
지금 뺀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


ヌヌヌ…




3배
계왕권
이다!
몸아,
반드시
견뎌
다오!!

2배 이상은
넘어선 안 돼,
손오공…!

아…,
안 돼…!!

서…, 설마
저 정도로
강할 줄이야….

하… 하지만
사실 저대로는
이길 수도
없어….

으아아아
아아…!!

이 승부는
패할지도
몰라….


삐삐삐삐삐삐!!


왜, 왜 그래? 무슨 일있냐…!?
아, 아마 손오공일 거라 생각되지만, 전투력 수치가 무지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어…!




이… 이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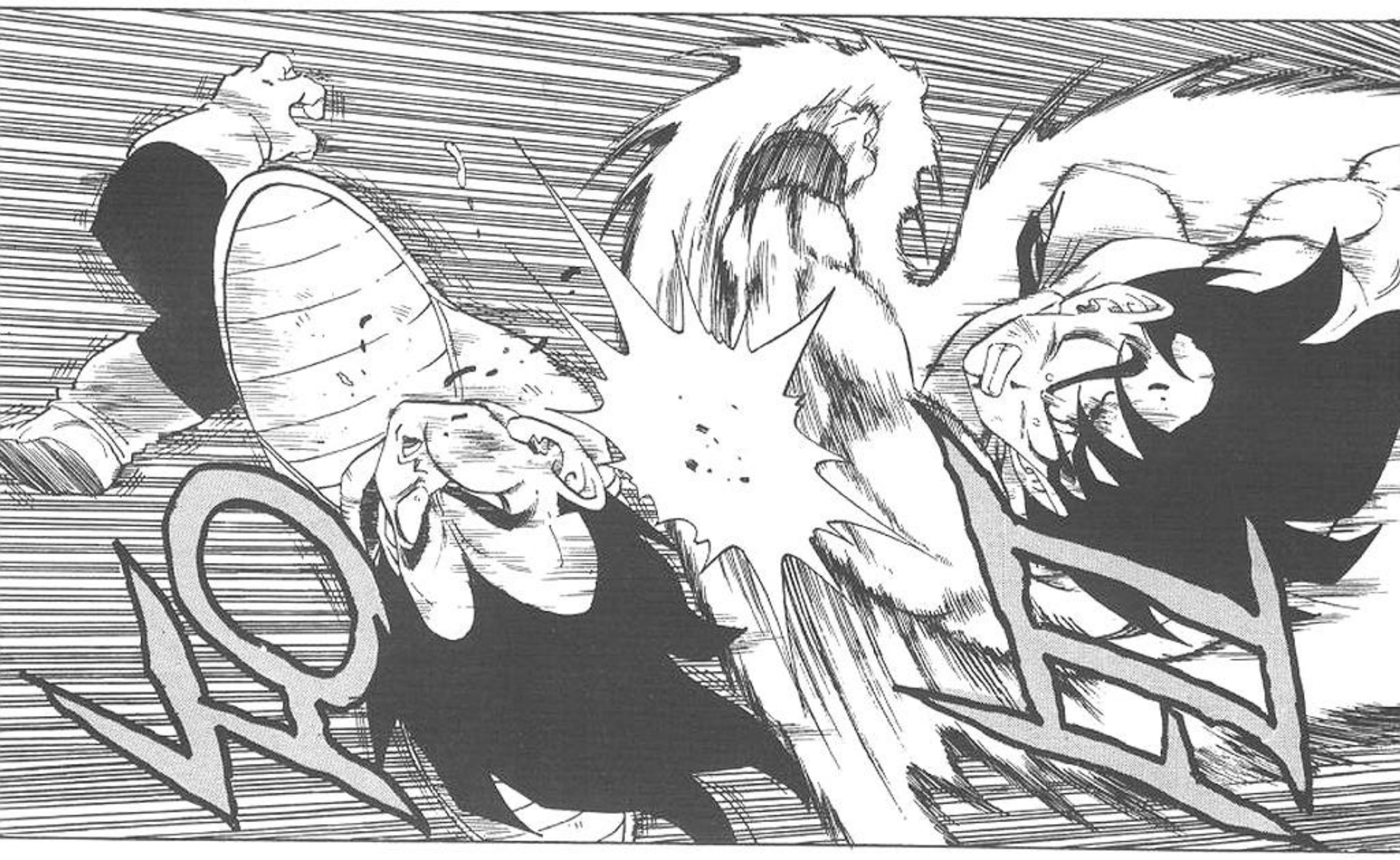

퍼엉
깍!!


우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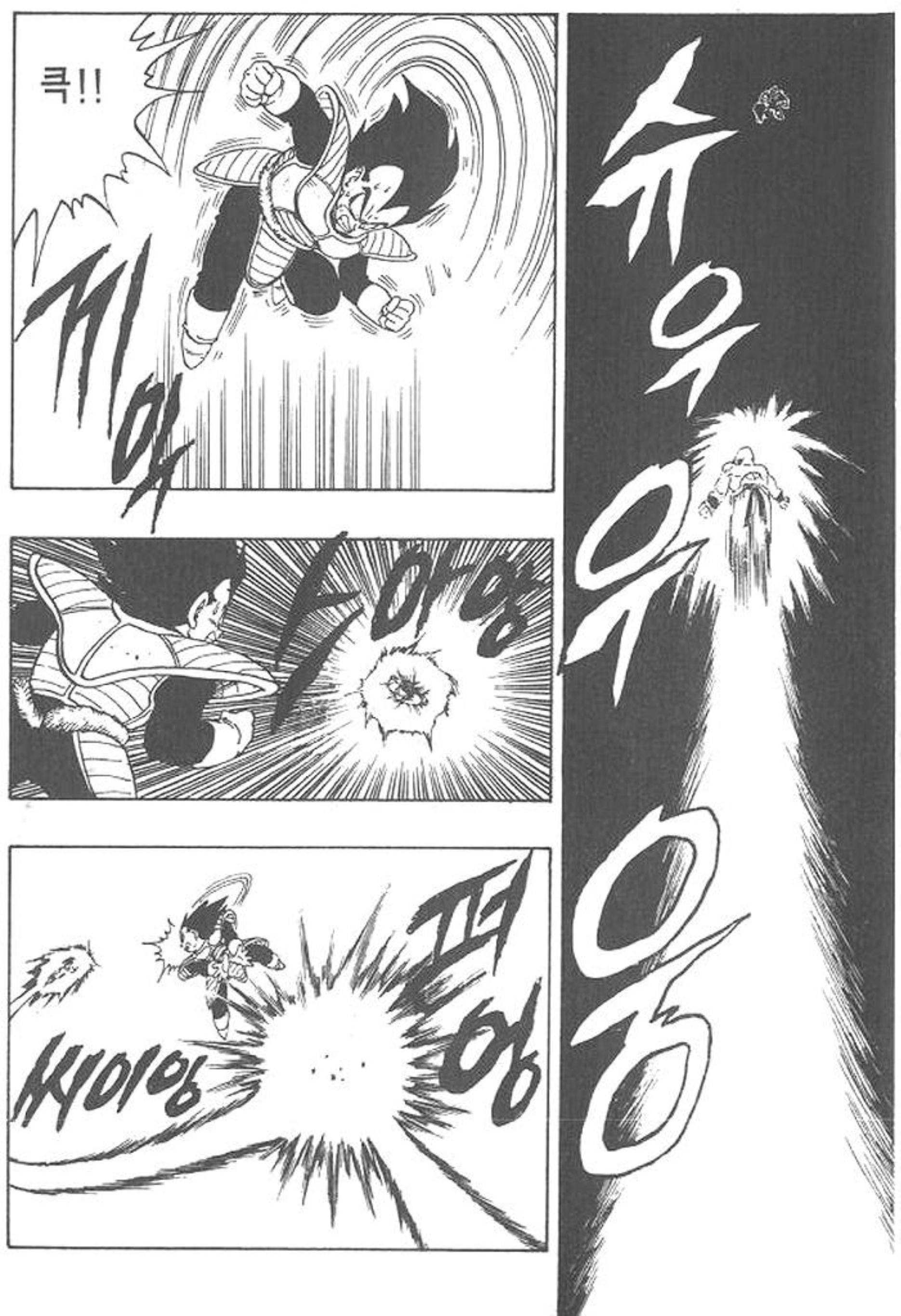

뭐야…?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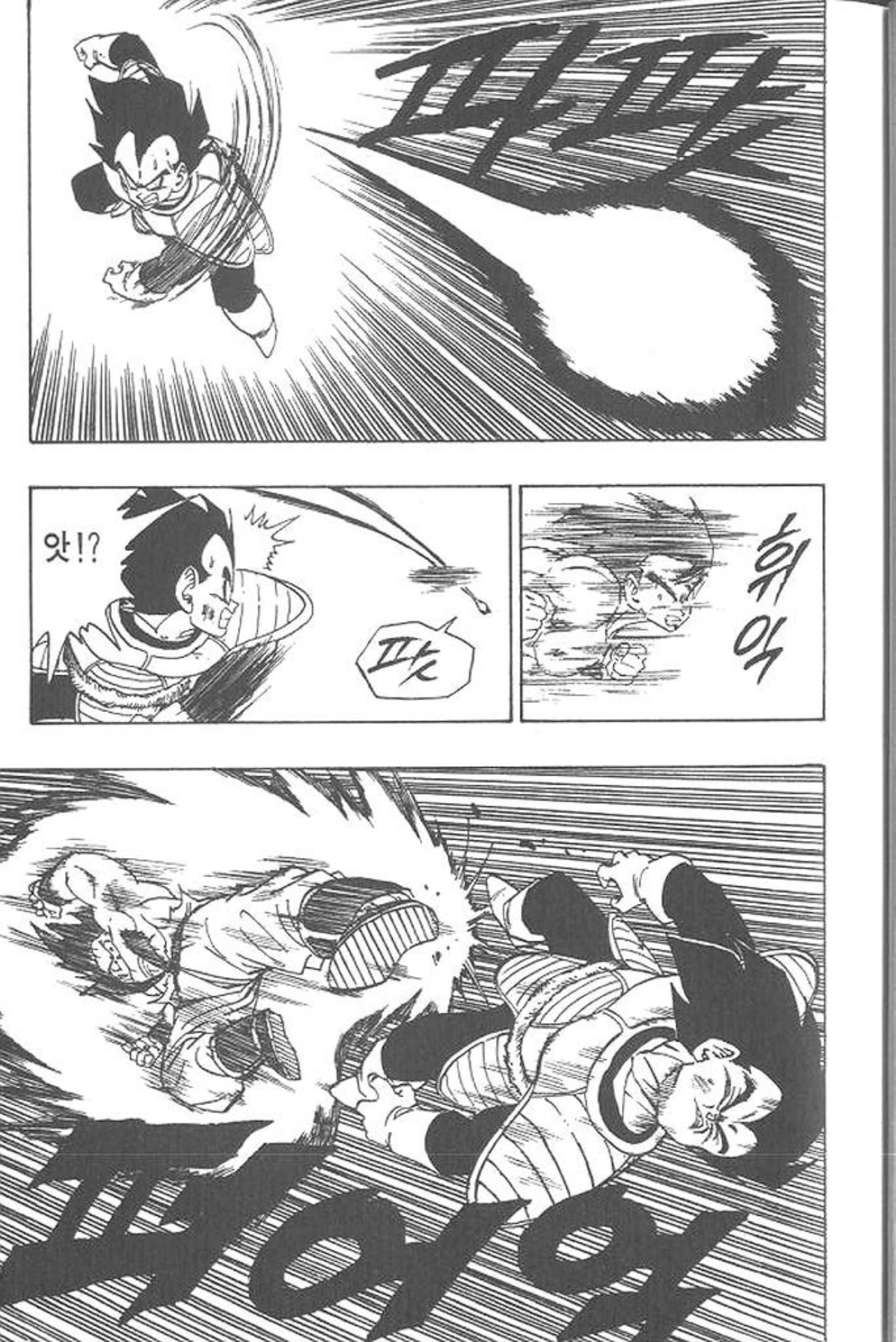





KRACK
KRACK


팡야
쉬이이


쉬우우우
큭!!
끼악
쿠아앙
피앙
씨이앙



휘익
앗!?
파


콰콰쾅
투둑…
툭…
끄으…
으으윽…!!
쨔아아아
크아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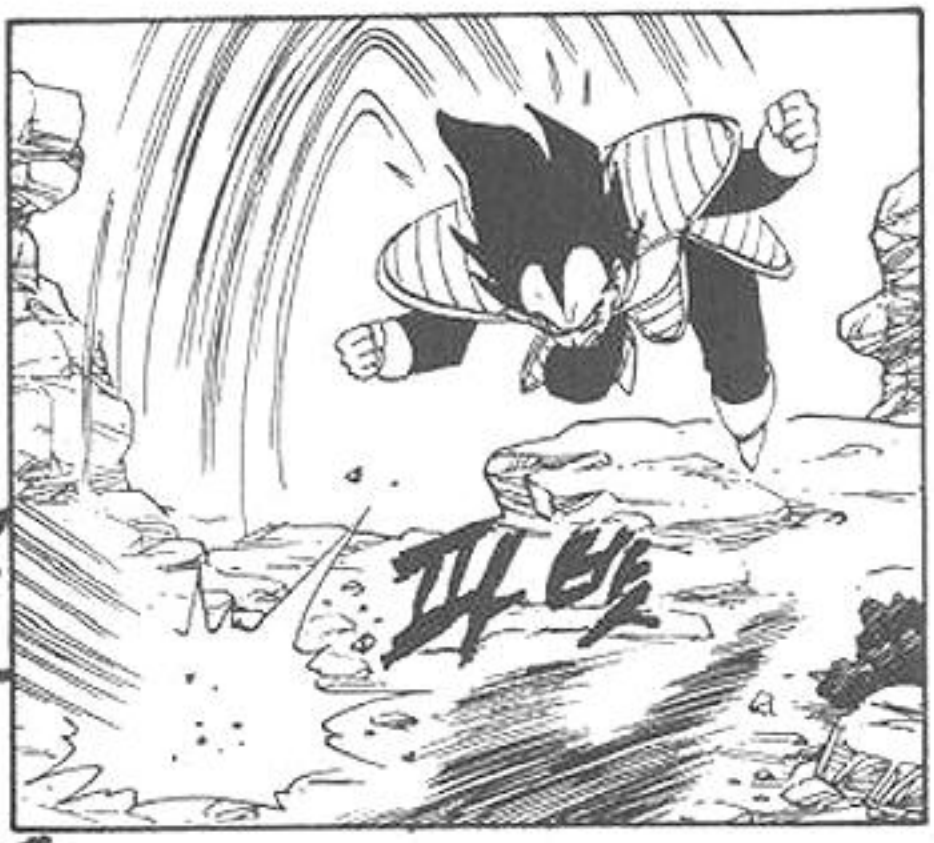

이 자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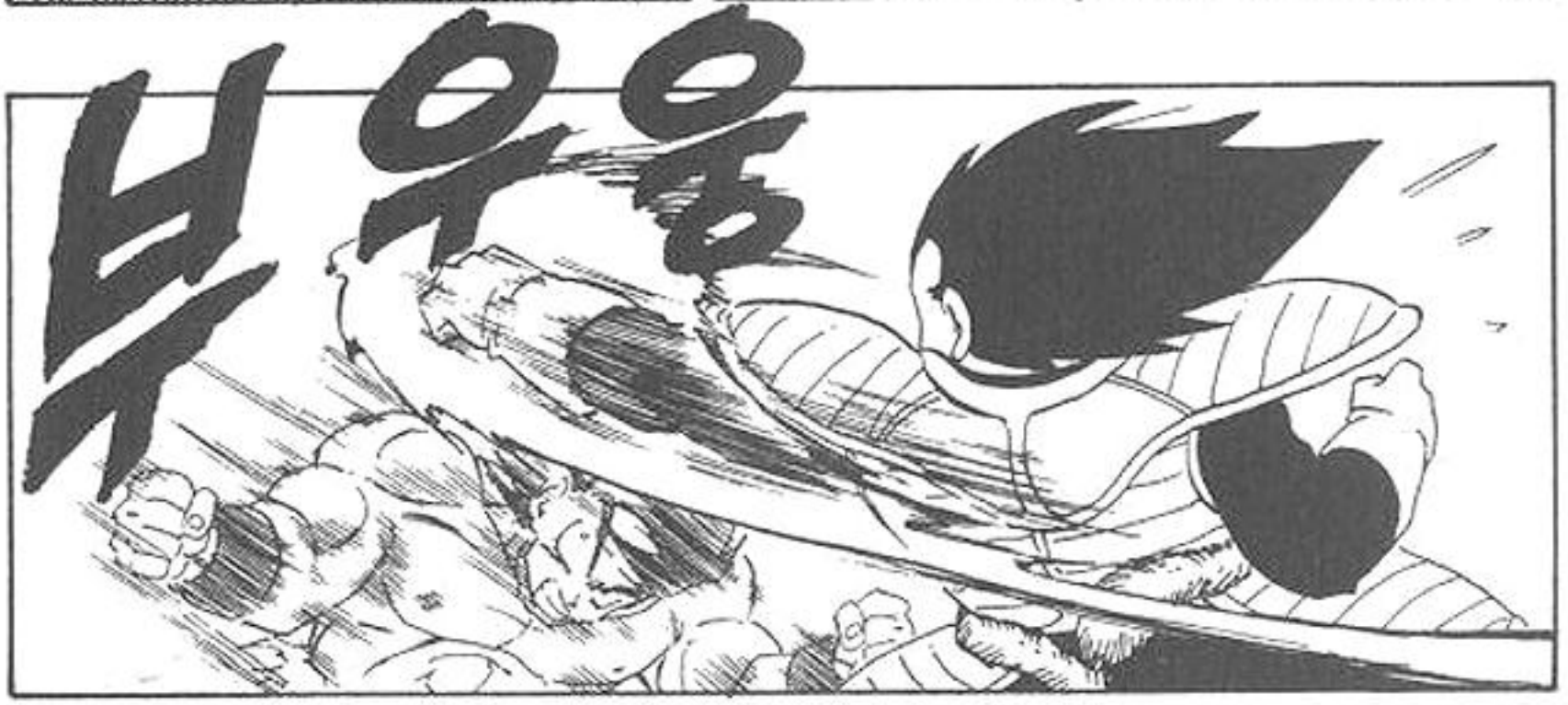

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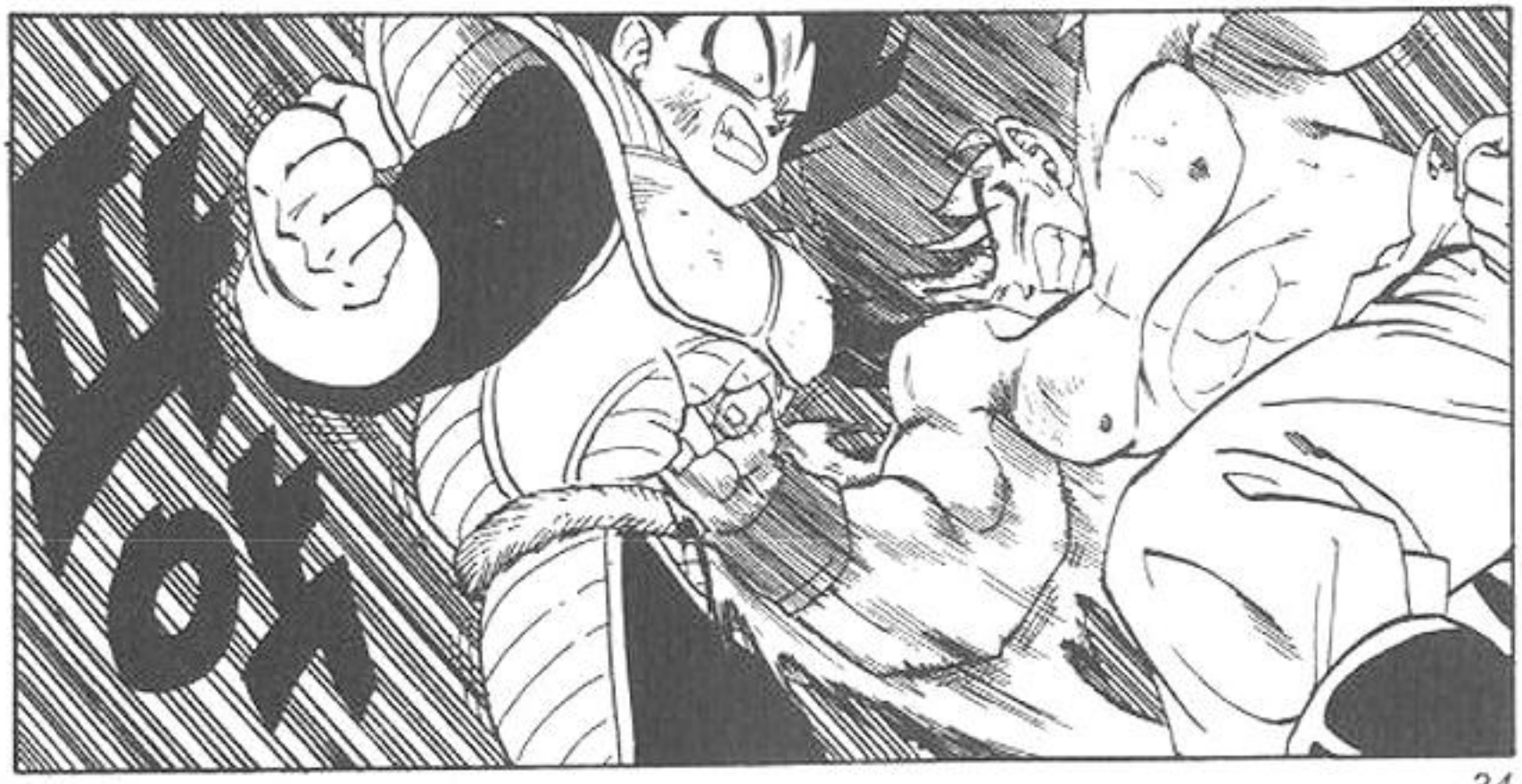

아니




피융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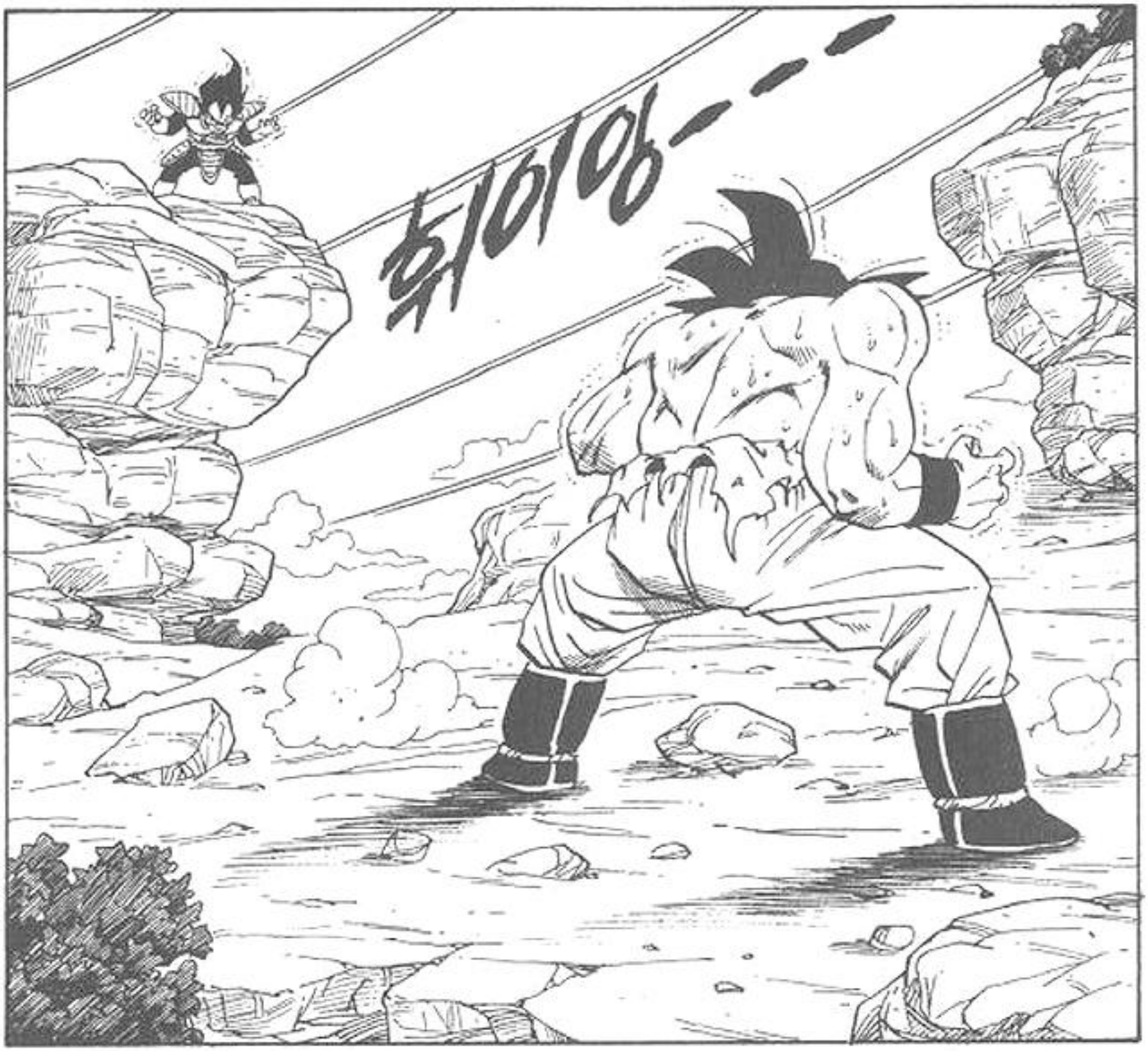

타앗


퍽





다음은, 제231화 레드존의 전투!


워이야---


나…, 난
초엘리트다…!
저… 저런
하급 전사에게
당할 리가
없어…!
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오…, 온몸이 쑤셔…! 역시 3배 계왕권이란 건 무리가 있구나….

선불리 써먹다간 오히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우주 최고라구…!!

쓰윽!

처… 처치해! 해치워버려, 오공!

가…, 감히 내가 저런 쓰레기를 상대로 이렇게 고귀한 피를…!!

피…!!

절대로 용서 못해….

요…, 용서할 수 없다….

뭐야!?

이젠 이 별 따위 필요 없어!!

지구까지도 몽땅 박살을 내버릴 테다-!!

파앙

피할 수 있으면 어디 피해봐라!

넌 살아도 지구는 가루가 된다-!!

젠장! 무식하게 나오는군!!

!!

모, 모험을
거는 수밖에!

으악!

3배
계왕권의
에네르기
파다!!

에…

네…

르…

기…!!

나의 갤릭포는 그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어…!!

지구와 함께 우주의 먼지가 돼라 —!!

제길!
이런 데서 죽을 줄
알았으면
고기만두나
실컷 먹어둘걸!


파앗—!!
으으




빠지지직
파직
윽!!

뭐,
뭐야!?
아,
아닛!

내, 내
갤릭포랑
똑같이
생겼잖아
…!!

이이이이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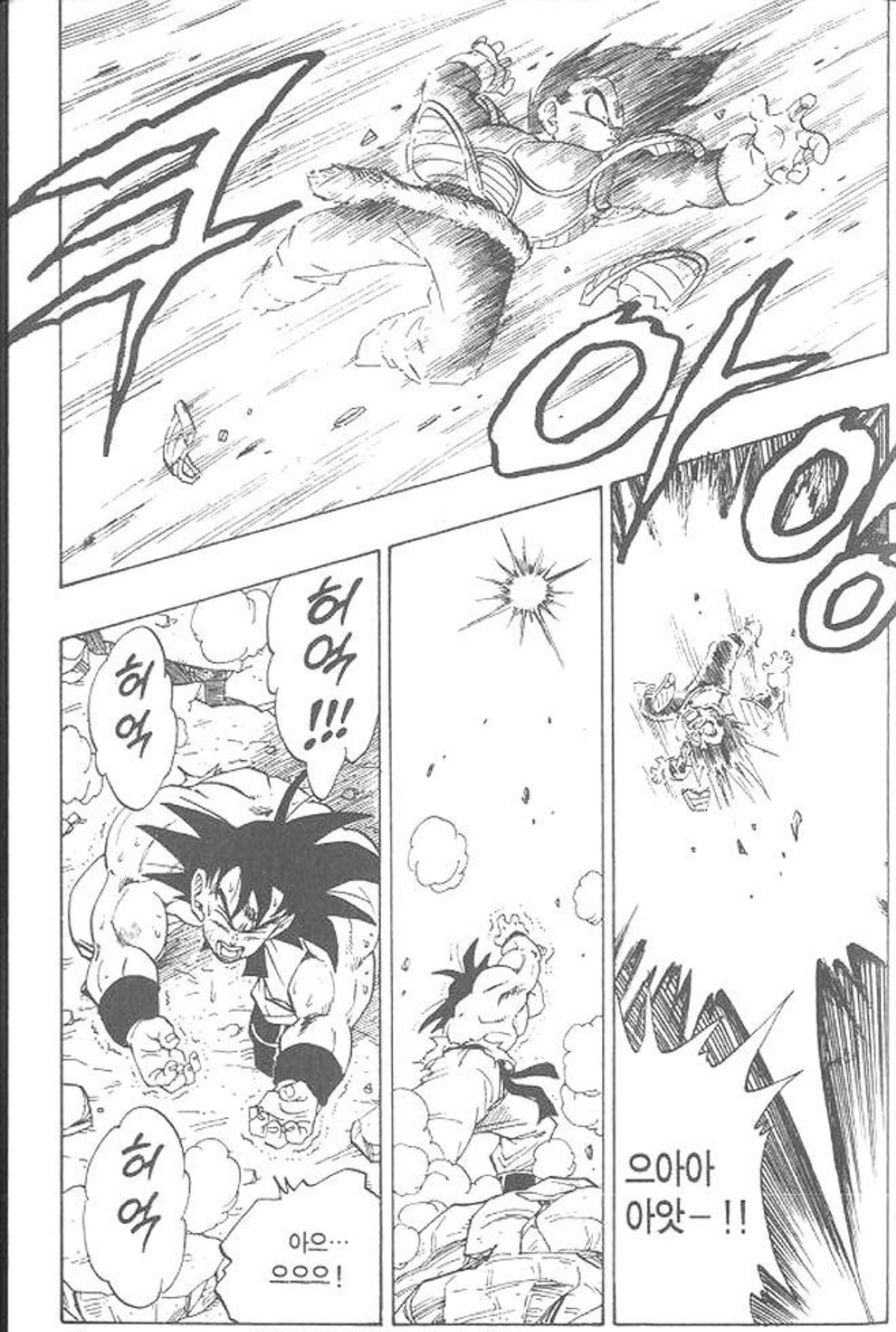
우우우
우욱
…!!


크으으으윽…!!
우오오오오…!!
4배다—!!


쿠왕


앗!
밀린다
….





다음은, 제232화 「달」

아으….

이겼다…,
이겼어…!!

마…,
만세….

크으…
으으으…!

헉 헉

헉 헉

멋지다!
이겼어,
임마-!!

오공
-!!

하긴, 너 같은 실력자가 정신 없이 필사적으로 싸웠으니!

뭐야! 눈치 못챘었냐?

어… 어떻게 네가 여길…?

탁

아… 야지로베…!

뭐, 뭐야!?

아으으 으으윽…!

가, 갑자기 왜 그래!?

찰싹

욱!

근데 정말 저렇게 무서운 놈을 박살 내다니!

역시 넌 대단한 놈이야!

그… 그보다…, 야지로베…. 어… 어서 피해라….

뭐!?

하긴…, 보통 싸움이 아니었으니….

헤에….

모…, 몸에 무리가 되는 기술을 썼어….

무… 무슨 소리야…?

서…, 설마….

그 정도로
죽을 놈이었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놈은
살아있어
…!!

말했잖아…!
아까 무리해서
이미 몸은
엉망이라고….

더…
더 이상
힘이 없어….

꾸 욱

그, 그치만
걱정없잖아!?
네가 더
강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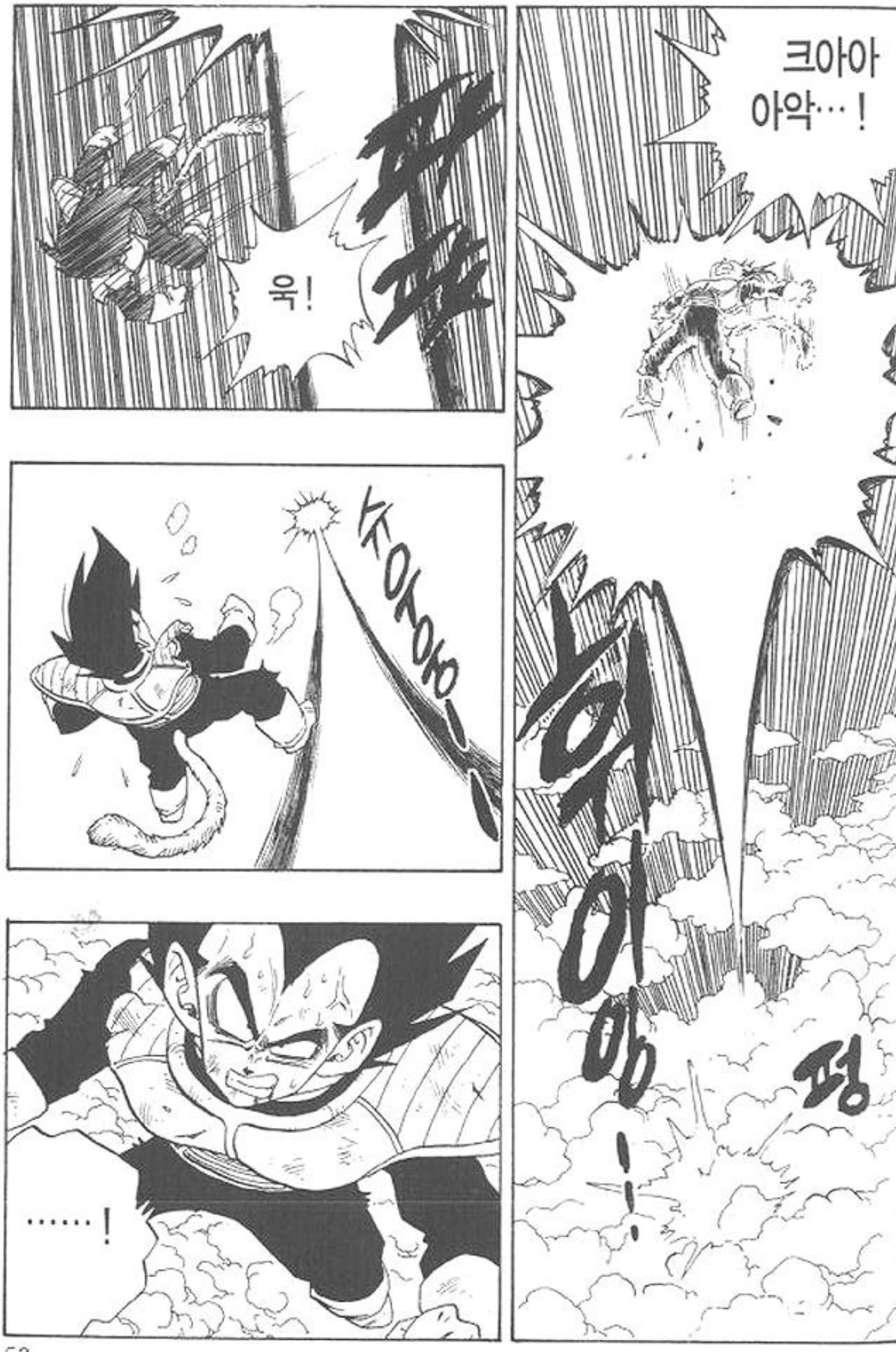
그…
래….

그….

그…
그럼…!

히…,
힘내라…!

그…
그래….


크아아
아악…!
우!
……!
펑

이런 빌어먹을~!!

어… 어떻게 카카로트의 전투력쯤이…

이… 이럴 수가…!

가…, 감히 나보다 더 높을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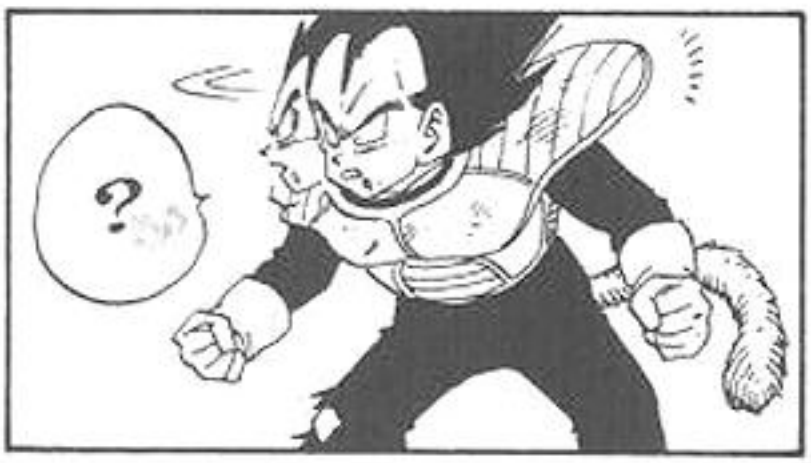
에잇, 제기랄~!!

난 사이어인 최고의 전사다! 난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하단 말이야!


히쭈---!


헉
헉


크흐흐…,
나의 거대 원숭이
파워는 장난이
아니라구…!
그…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보기
추하고 메스꺼운
거대 원숭이로 변해서
해치울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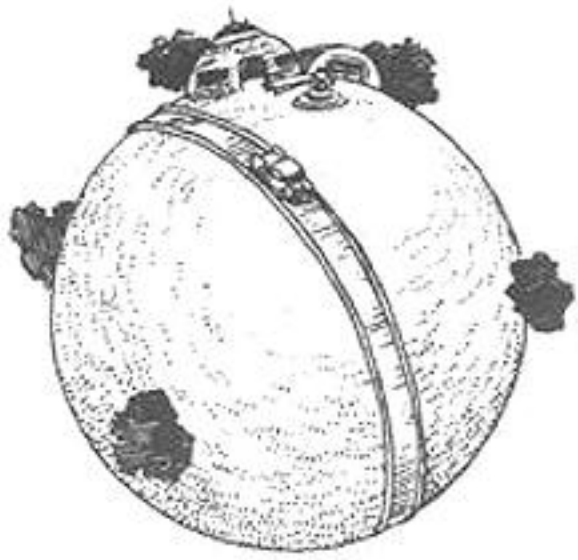

?


이상한걸…,
벌써 달이
보일 시간
인데…,


설마…,
저 카카로트놈을
없애기 위해
변신하게
될 줄이야…!
제길…!
이 별 놈들을 손쉽게
정리하기 위해
보름달이 뜨는
날을 골라서
왔는데…,
정말
뚜껑
열린다…!

달은 없다구…!
피콜로란 놈이 이렇게
나오는 게 두려워
미리 없애 버렸지….

후후후. 멍청한
사이어인 자식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어.



하지만 놈도 약해졌어…!
원기옥을 쓸 기회라구!
지금 놈의 상태라면
원기옥만 명중시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손오공에겐
이미 힘이 남아 있지
않을 거야….
사이어인 녀석이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지
못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없다!
달이
어디에도
없어!

이상하네….
엄청 허둥대고
있는걸….
왜 공격해오지
않는 거야…?


할 수
없군….
……


카카로트
자식,
미리 달을
없앴구나….
그… 그랬군…!
제길….
정말 사람
열받게 만드는
놈이라니까…!


후하하
하하…!
놀라서
뒤집어지는
놈의 얼굴이
볼만하겠군!


전투력은
좀 약해
지지만….
그 방법
외엔
없겠어….


이제야
내려
오다니…!
!!
기야


휘익

저놈에게
이기려면
원기옥
뿐이야….

정신집중이
제대로
가능할까…?

탁 탁

감히 달을
없애다니!
아무리 짱구를
굴려봤자 네놈
계산대로는
안 돼!

…… 달!?

뭔
소리야
…!?

후후후,
시치미
떼기는….

왜 보름달을
보면 변신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그 부르츠파가 보름달이 되면 1700만 제노라는 수치를 넘어서지….

달빛은 태양광이 달에 부딪쳐 생기는 빛이란 건 알 거야…. 그러나, 달에 반사 되었을 때만 그 태양광에는 부르츠파가 포함된다….

변신…?

?

전 우주의 혹성에는 달이 무수히 많지만, 그 크기에 상관없이 왠지 꼭 보름달이 되어야만 1700만 제노를 넘은 부르츠파가 나온다….

그러나….

1700만 제노 이상의 부르츠파를 눈으로 흡수하면 꼬리가 반응해서 변신이 시작된다…!

한정된 소수의 사이어인들에게만은 인공적으로 1,700만 제노가 넘는 작은 보름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별의 산소와 이 파워 볼을 서로 섞어서 만드는 거야!

원래 하급전사가
초엘리트한테
도전한 것 자체가
실수였어!
후하하하…!

헉

헉

오래 기다렸지,
카카로트!
드디어 네놈이
죽을 시간이
왔다…!

헉

헉

저러면서
뭘 하려는 거지?
전혀
모르겠다…!

저 이상한
빛이 나온 순간
놈의 기가
줄어들었어!


아니, 뭐야?
휘이아앙---
흩어져서 섞여라!
큭!!


휘이이잉---
헉
헉
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건 뭐야!?
서, 설마 …!!
달을 만들 다니!
꼬리 없앤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카카로트 …!
!?



다음은, 제233화 원기옥 발사는 가능한가!?


힘내, 오반!
좀만 더 가면 거북하우스야!
예, 예!


저건….
자, 잠깐….
응?








아… 아니…. 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저 밝은 게 뭐지…? 별인가…?
우… 우리들이 있던 쪽이야….

그…,
근데 이거
무시무시한
기네…!

그… 그래…,
이, 이 불길한
느낌은
그놈의
기다…!

아… 아빠의
기가 또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뭐,
뭐지…!?

어…,
엄청난
기가
올라가고
있잖아…!

도, 돌아
가다니…,
오공한테
!?

뭐!?

난…
난 다시
돌아갈래…!

……!

아…
아빠….

그래도
….

으…,
응….
알아.

그… 그렇지만
이렇게 기가
엄청난 놈인걸….
우… 우리가
가봤자 어차피….

아빠가
위험하다구….
이… 이대로
죽을지도
몰라…!!

나, 난
느껴져…!!

내가
가야 돼!!

앗!

야, 임마!

아…
아…!

이… 이럴 수가…!

서, 서라! 오반!

나도 갈게! 같이 간다구!!


쿠아아
아아… !!


크우오
오오… !!



쿠하하! 어떠냐, 카카로트!? 이제 넌 끝장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대 원숭이 괴물…!

거… 거대 원숭이…!

오공아, 보름달 밤에는 거대 원숭이 괴물이 나온단다…. 절대로 밖에 다가지 마라. 누워 자는 게 안전해…

그, 그 꼬리는 내가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해주마…. 아, 아무래도 거추장스러울 테니까…

神

거대 원숭이로 변신한 사이어인은 전투력이 인간일 때보다 10배까지 올라간다!

한가지 좋은 걸 가르쳐 줄까…?

이… 이럴 수가….
하, 할아버지를
밟아 죽인 것도…,
무… 무술대회장에
나타나서 대회장을
박살낸 괴물이란 것도
바로 나였어…!

그…
그랬군….
이제
알겠어….

……!

미안해.
할아버지….

이…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난
놈이야.
아마 내 기를 전부
사용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죽어서
저세상에
다시 가면…,
용서를 빌러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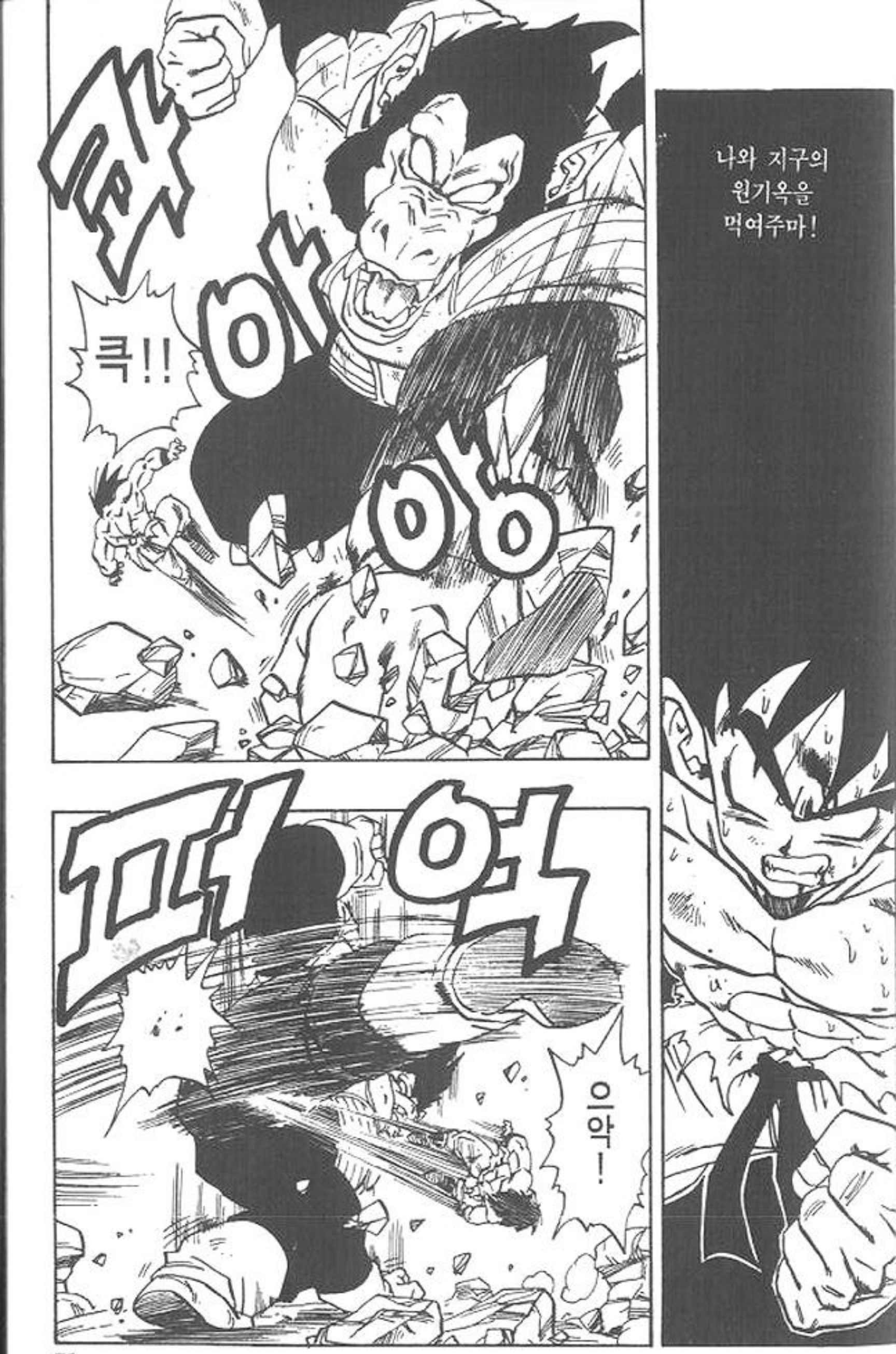
저…
저 괴물의
옷….
사이어인
거잖아….

정말
무시무시
하네.

저, 저건
사이어인
인가…!?

뭐냐구,
저 괴물은
…!!

뭐, 뭐,
뭐…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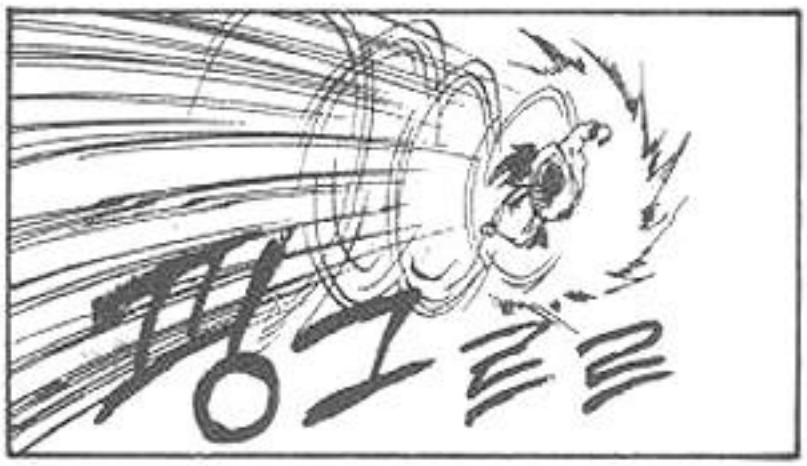

나와 지구의
원기옥을
먹여주마!
쾅
큭!!
아아
으악!

크아아…
악…!!

계,
계왕권!!

푸하하
하핫!!


SOCK
OFF


팡그르르


윽…!
크윽!!



원기옥을 쓰기 위해 정신집중을 할 틈도 없어!

무, 무식하게 크면서도 무지 빠르잖아!

으하하하! 어떠냐!? 이젠 도망도 못칠걸!!

계왕권을 5배로 올려도 놈한테는 통하지 않을 거야.

파

!!

아, 아참!!

다, 단 10초만 이라도 좋은데!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천진반
기술을 좀
빌려야지!

태양권!!

으악!!

눈부셔서
볼 수 없는
사이에!

휘이잉

누…,
눈이!

크아악!

타닥

허억

허억

돼…,
됐어….
이 거리
라면…!

내게 아주 조금씩만 힘을 나눠다오!

대… 대지여, 바다여!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제… 제길~!!

부탁해!!

다음은, 제234화 원기옥은 어떻게!?

거대 원숭이로 변신한 무서운
베지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원기옥을 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한
정신집중을 할 시간이 없다!
오공은 태양권으로 베지터가 눈을
못뜨게 해놓고, 거리를 둔 다음
정신집중을 시작했다!

조,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하면 원기옥이
가능해져!

욱…!
크으으…!

제길!
누…,
눈이…!

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놈의
공격보다 먼저
원기옥을
쓸 수 있어!

비…,
빌어
먹을~!

기운이
모이졌어!

제, 제길!
어디야!?

어디
갔냐구!?

제발
성공해야
돼!

날
잦아
냈네!

!!

도망가도
소용 없다!
기로 알 수
있으니까!


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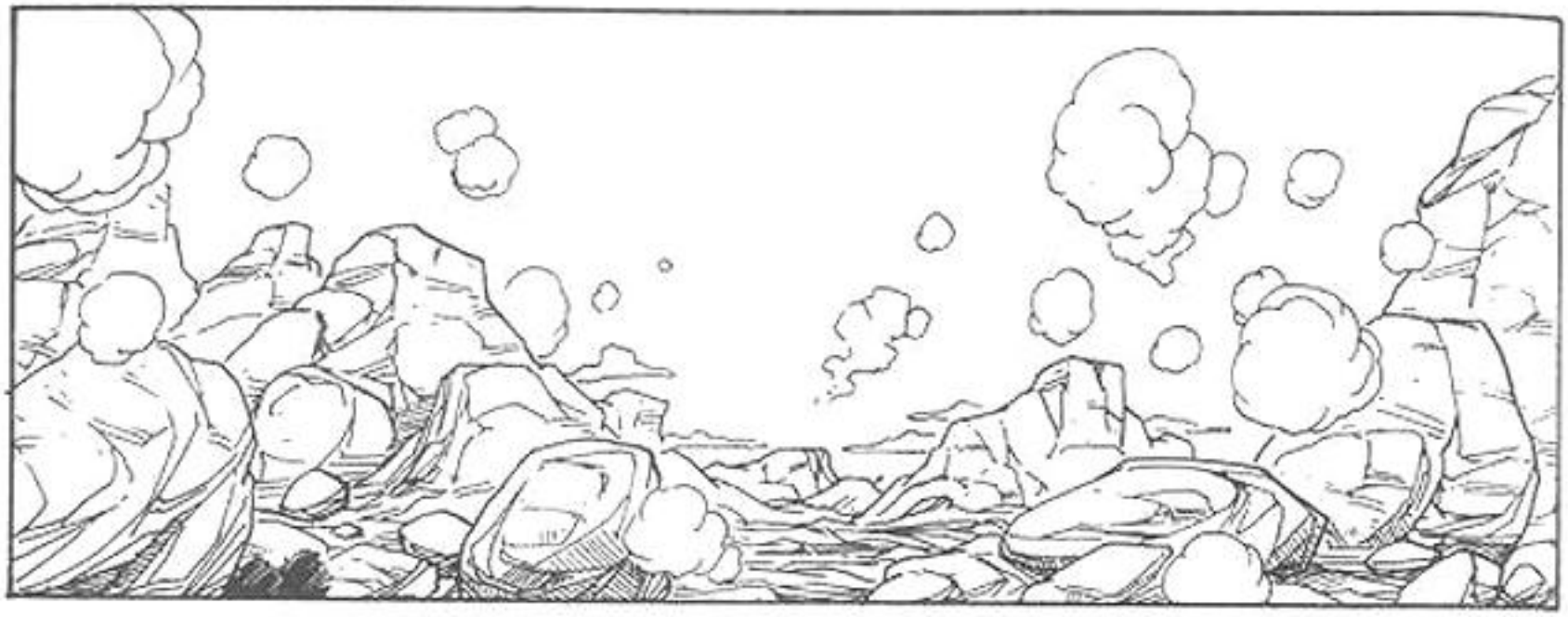

08


지구의
기운이
모아졌어…!
돼…,
됐어…!
좋아!!


먹어라!!


Fororo
!?


으아악!!




아으…
으…
크윽…


샤앙
샤앙


어…, 엄청난 계산 착오였어…
이런 젠장~! 서, 설마 이런 공격을 해올 줄이야…!

쿠웅…

겨… 겨우 만든 원기옥이 사라져 버리다니….

크…, 큰일났네….

좀전의 원기옥으로 내 기를 거의 전부 다 썼거든….

끄…, 끝장이다…. 이… 이젠 진짜 승산이 없어….

쿠웅

쿠웅

흥…! 끈질긴 놈.

하지만 너도 이젠 한계가 다 됐다는 게 느껴져….


팡


앗!
타타


퍽


으하하하!
자, 어쩔
테냐!?



파아아아
털썩…
파
으크…
으으…!
크…!
이익…!
쌍아아
쿠아아

오공의
기가 점점
작아진다!

아,
아빠…!

서둘러!
얼마 안
남았다!

크으아
아악
~!!

으아아아
아악…!!

우아악…!

헤헤헤헤…!

아차! 이거 미안, 미안!

실수로 밟아서 다리가 맛이 간 것 같네!

헉 헉 헉

그럼 이번엔 실수로 심장을 밟아주마!

이제 끝났어, 카카로트!

가령 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그땐 이미 이 별은 없다!

가…, 강한 놈을 찾은 건 기쁘지만 이렇게 죽다니….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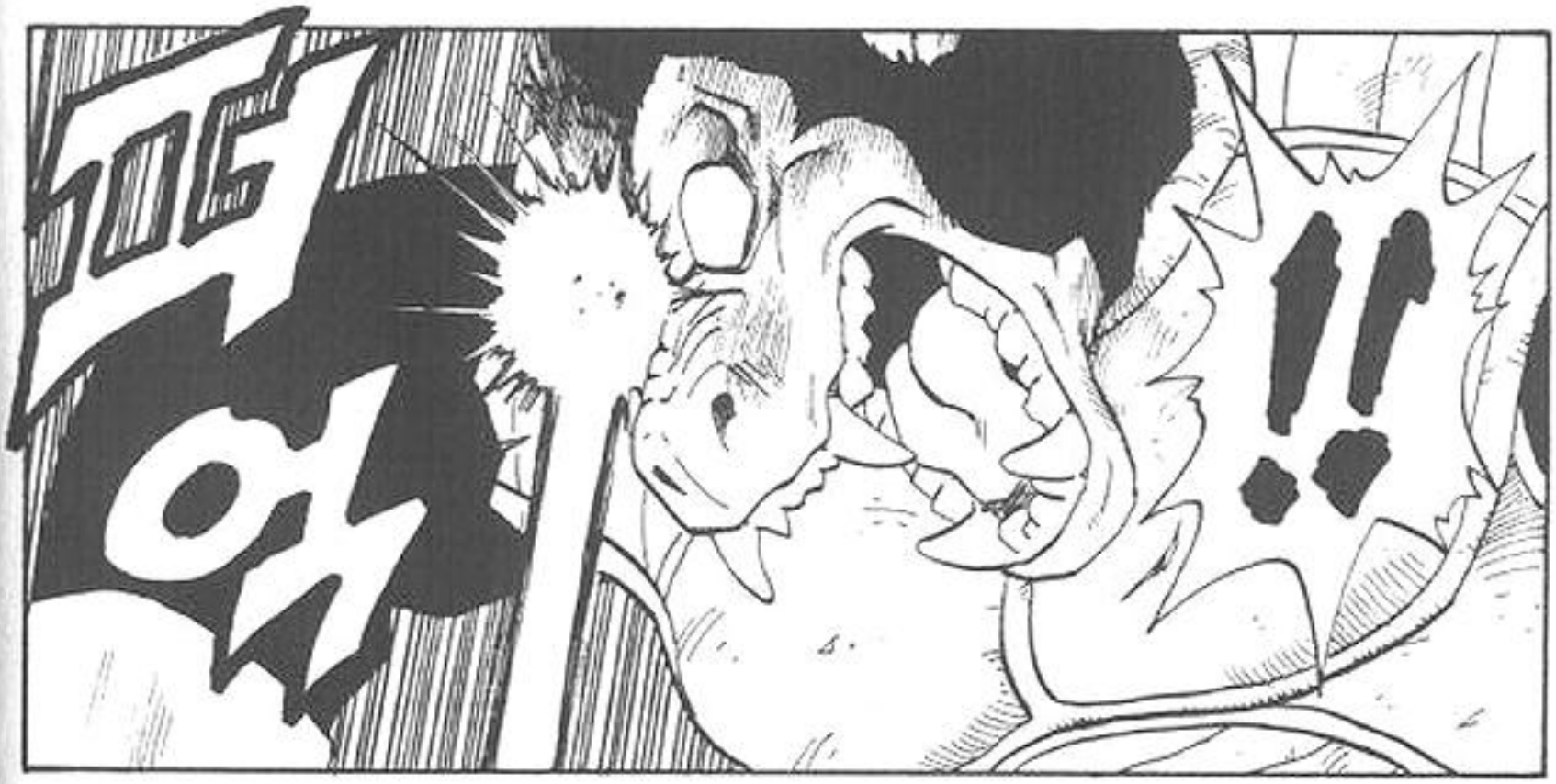
헉

제… 제길…! 와…, 완전히 졌다…. 이… 이렇게 실력차가 크다니…!

부…, 분하다….

퍼엉

죽어라!!


SOC
아!!


헤헤….
가는 길의
마지막
선물이다….


크아아
아악!!


덜컥…


이… 이제
내겐 코딱지 팔
정도의 힘도
남지 않았어….
마…, 맘대로
해라….











다음은, 제235화 파리목숨 손오공!!


크아아
아악~ !!
우두둑


나…, 난 널
그냥 버린 게
아냐…,
내, 내 실력으로
어쩔 수가
없다구….
나…, 날
원망
마라….


히이이익…!
저… 저
지독한
놈….
트…,
틀렸어!
죽겠다….


푸하하하
…!
실컷
괴롭히다
죽여
주마!
으아
아악…!


!!
뿌드
뿌드




크으으
아아~
!!


다 왔다!
금만
가면
!

대, 대체
뭐지… !?

저 이상한 빛의
구슬 때문에
저녁인데도
이렇게
밝은 거야….

크, 크리링
아저씨 !
저…
저건… !?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 !

내려가,
오반 !


쟤네들…!
앗…!


저… 저게 뭐지…?
빨리, 이 바보야!


아… 이런…! 저, 저놈이 거대 원숭이로 변하다니…!


오공이 당하다니, 큰일났네!
타닥
타닥


크흐흐흐! 이젠 완전히 뼈가 다 부서졌겠지? 아프냐? 엉?


예, 예!
이쪽이다!

앗!!

이봐!

그렇지만 놈의 꼬리를 자르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알고 있어!

저 괴물이 누군지 알아!? 사이어인이야, 사이어인!!

이봐!

야, 야지로베!

서둘러! 손오공을 구해야 해!

예, 예!

알겠지? 오반과 야지로베는 앞으로 돌아가서 놈의 주의를 끌어!

내가 그 사이에 뒤에서 꼬리를 자를 테니!

꼬, 꼬리!?


퍽
퍽


주. 죽지 마!
아. 아빠!


무, 무슨 헛소리야! 놈의 주의를 끌라니…?
너… 너희들은 뭘 몰라…! 노…, 놈은 원상태로 돌아온다 해도 엄청나게 강하다구…!


오. 오공의 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 이거 큰일났네! 제. 제길! 죽기 직전이야…!
파앗

어디지!?

뭔가 있구만!

!?

여기다!!

아, 아빠를 내놔!

이거 뜻밖인걸. 카카로트의 아들놈이잖아!

그래…. 일부러 아비의 최후를 보러 왔단 말이냐!


이제
끝낼 거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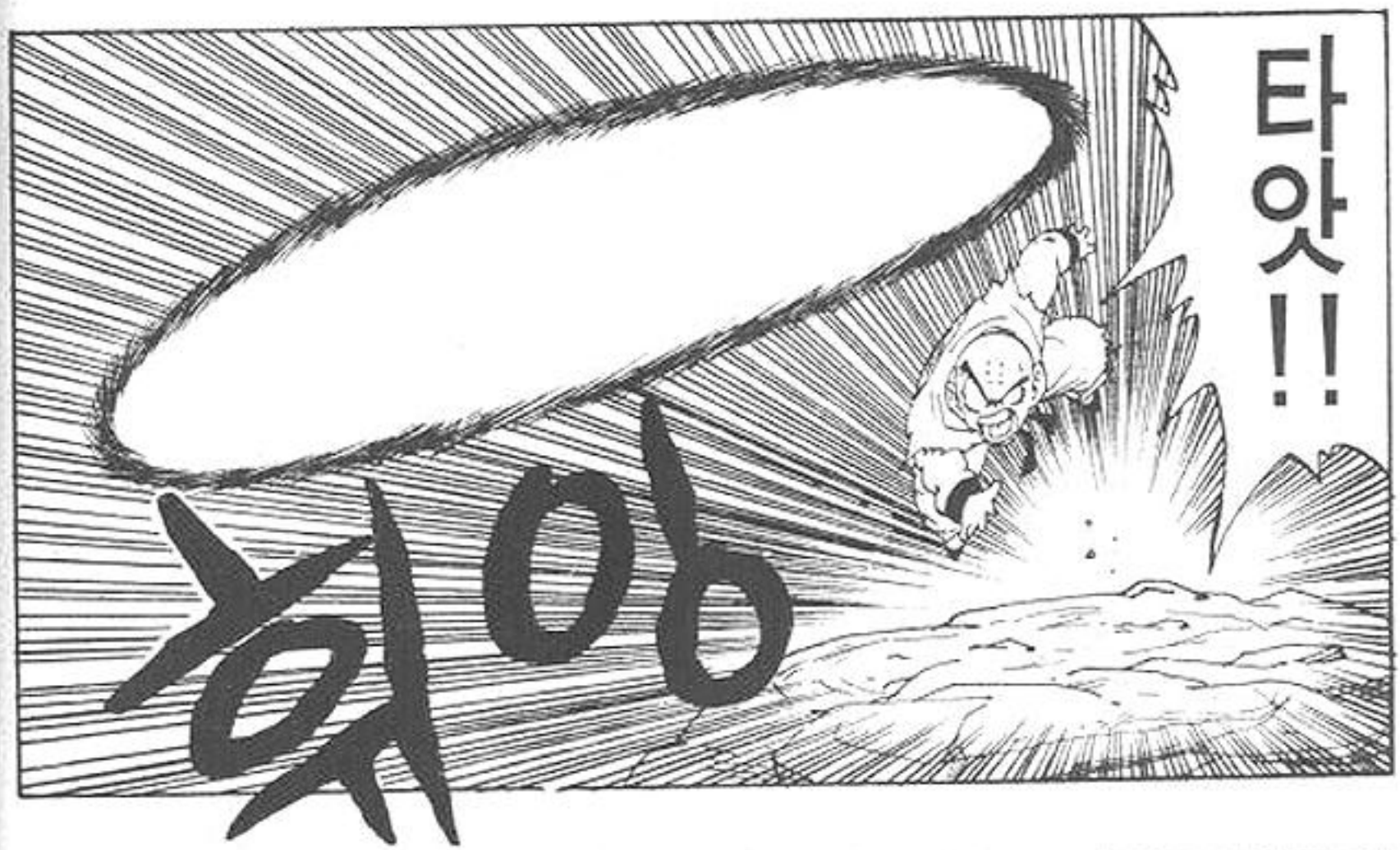

기원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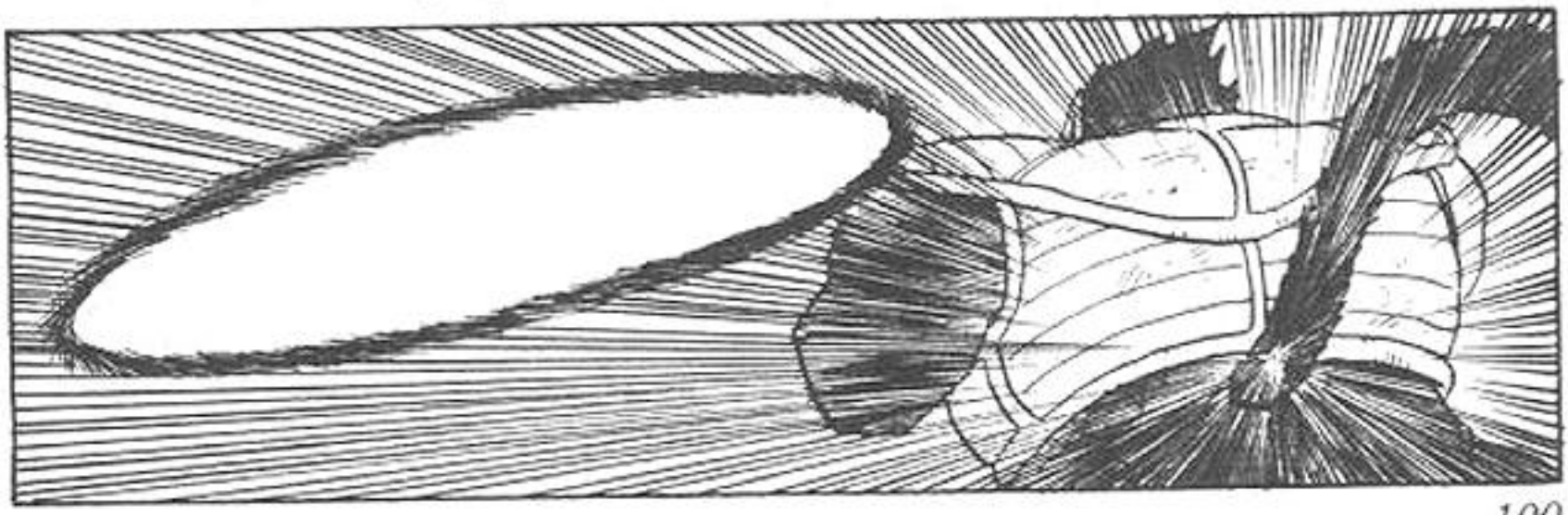



혼적도
없이
묵사발을
내줄
테니까.
잘
봐둬라!




섭섭하게도
이놈은 벌써
정신을 잃었나
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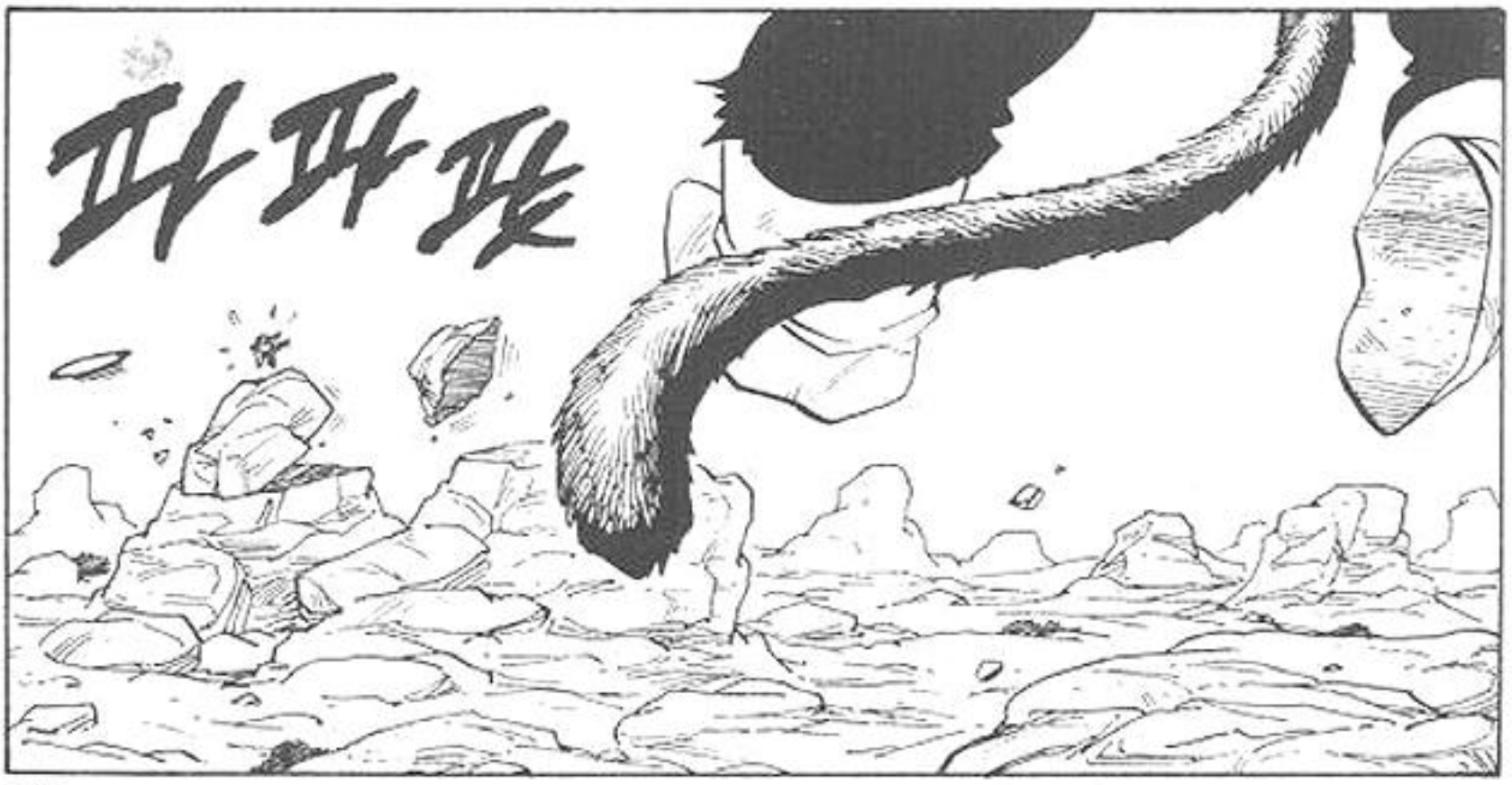

타앗!!
휙ob











쿠웅…!

저,
저런…!

……!

으아아…!

히이익…!

카카로트를
처리한
다음엔
너희들
차례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쓸데없이
인정 따위를 좋아
하는 것 같았거든.
이 꼬마만 어슬렁
거리며 나타날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지롱….

한 놈이 더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크흐흐….
꼬리가
약점이란 걸
아는 모양인데,
안 됐어.


미… 미안해…, 오공….
네… 네가 죽는 걸
보고만 있고 싶진
않지만…, 이놈의 기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접근할 수도
없구나…!
이… 이런 제길…!
저런 나쁜 놈….
이… 이놈은 괴물로
변했는데도 냉정하고
빈틈이 없네….
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제,
제길~!!
그만-!!
아,
안 돼…!
감히
네놈들이
내게
덤빈 게
잘못
이었지!
으하하
하하!!
우…
!!




놓다!!!


털썩!!!


타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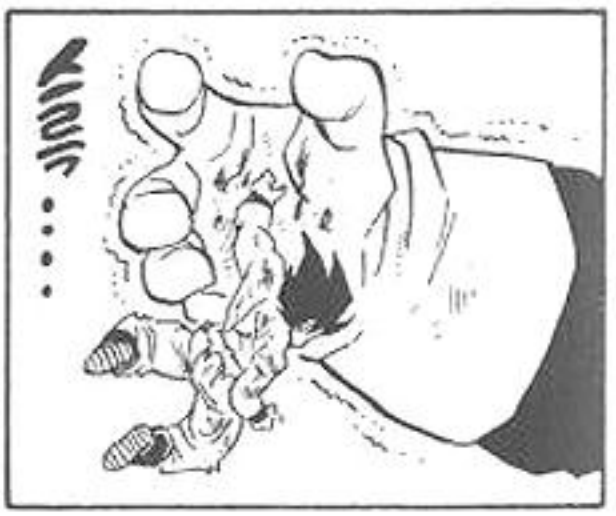


















다음은, 제236화 희미한 저항

헉

헉

헉

헉

꼬리를
잘랐어…!

자…,
잘랐다….


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네…!
머…, 멋지다. 야지로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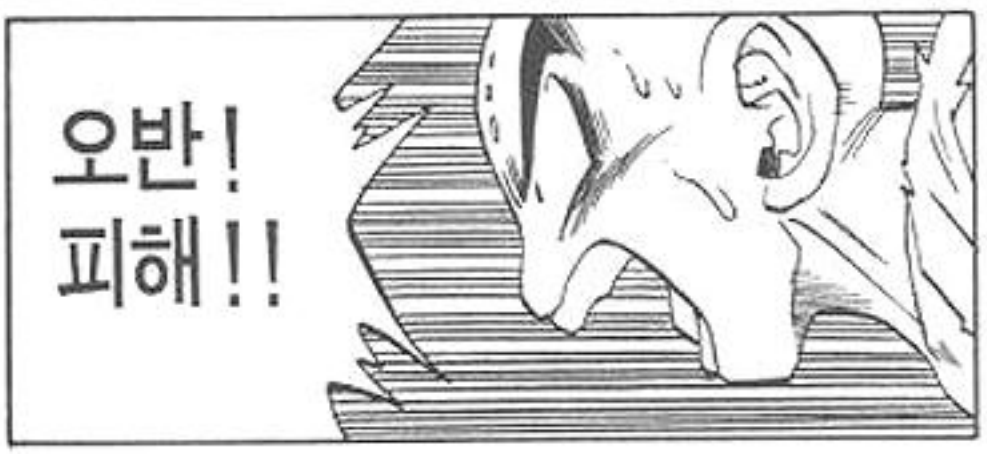

날 열받게 만들다니! 그렇게 죽고잡냐~?
이, 이놈들~!


나, 난 몰라! 이제 난 책임 안 진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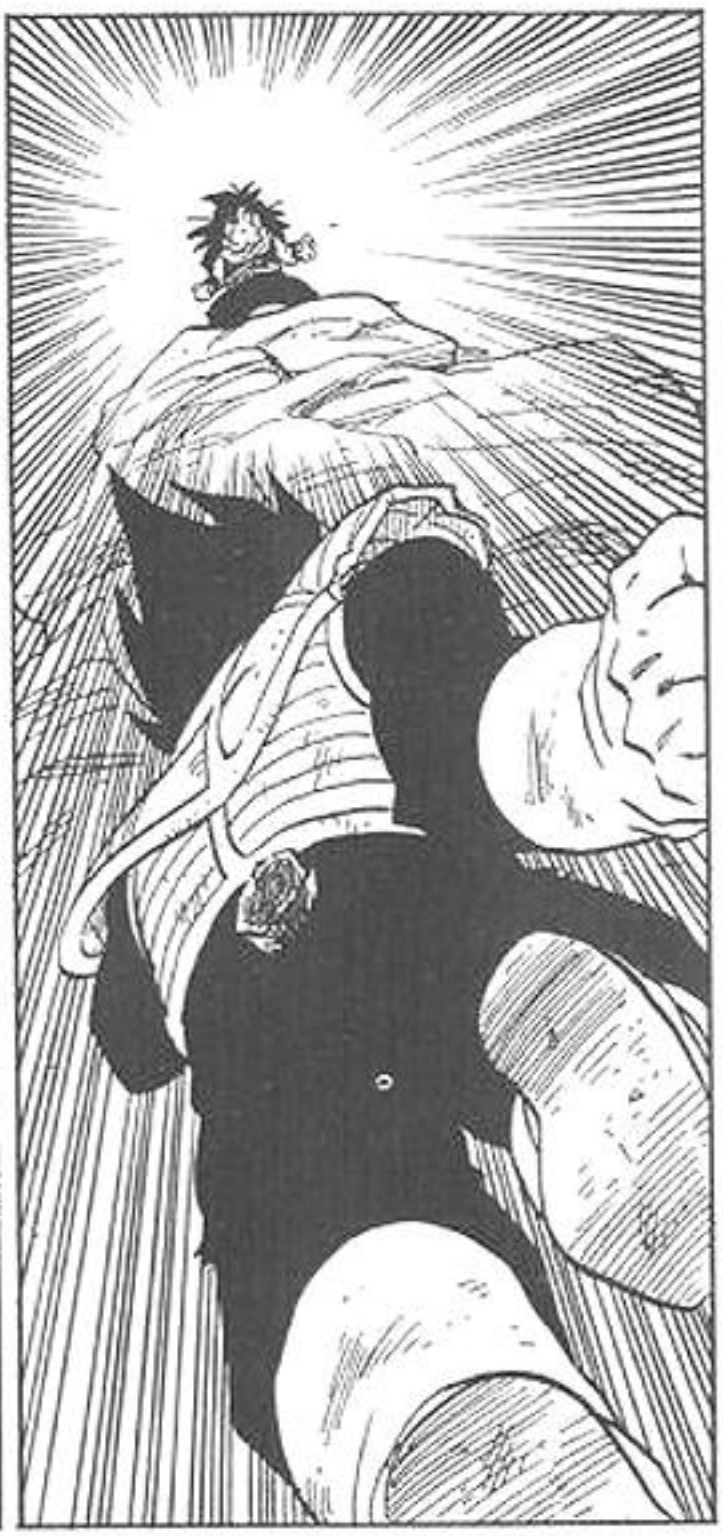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그럼 소원대로 다 죽여 주마-!!


어, 어째서 그 괴물이…!?
어… 어떻게 된 거야…!?


거봐!


오반!
피해!!


EH
E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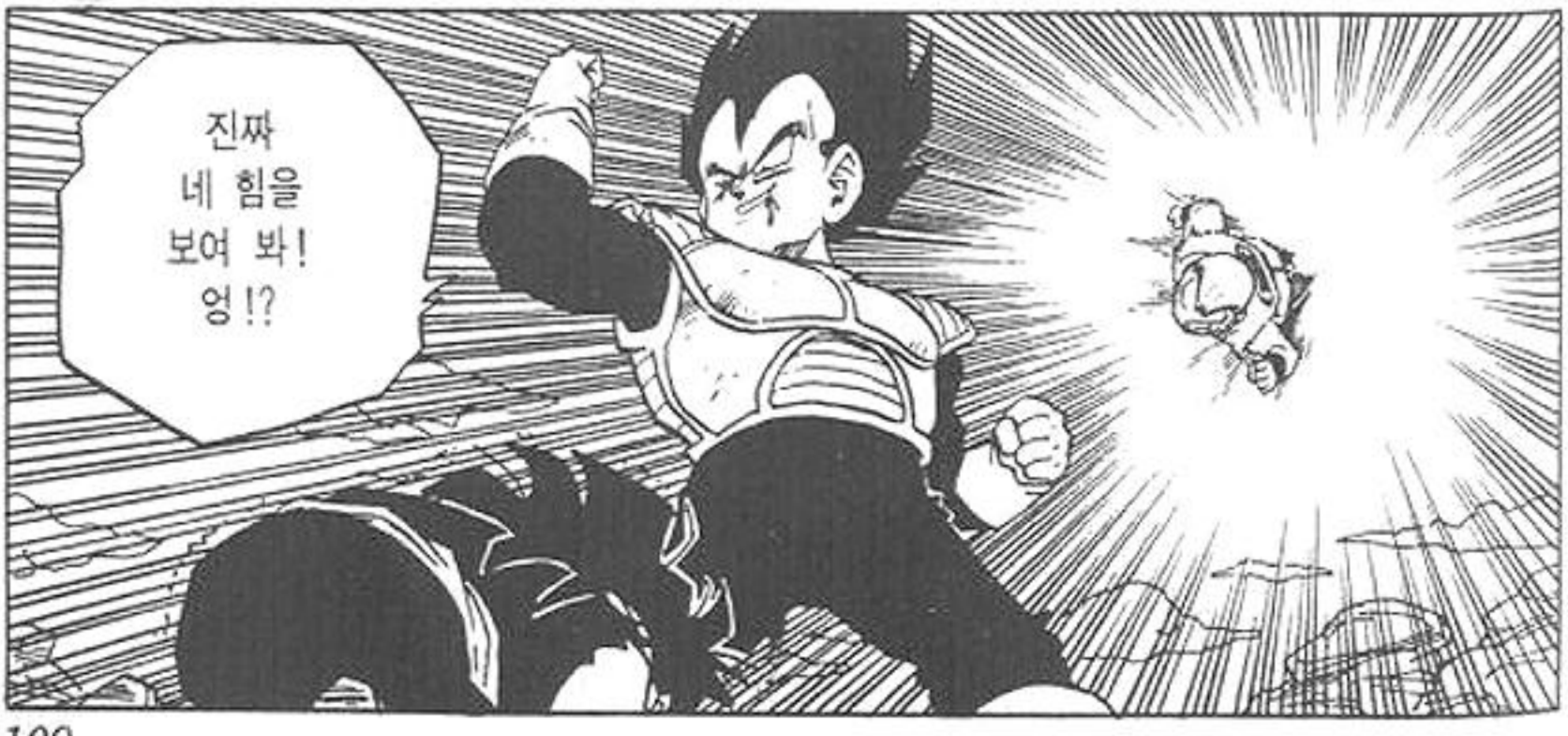



아….
우선
너부터다.


컥….




왜 그래?
사이어인과
지구인의
혼혈은
강하지
않았었나?


진짜
네 힘을
보여 봐!
엉!?




파앙
퍼억

헹! 그렇게도 먼저 죽고 싶어?

꿈틀-

꿈틀-

으… 으으!

덜덜-

자, 일어서! 좀 더 놀아다오!

거… 거봐! 그럴 줄 알았다구….

퍽

퍽

퍽

휘잉

아버지 옆에서라도 죽게 해줄까?

난 마음이 착하거든!

털썩

윽!

오… 오반….

으으….

오반…, 아… 아빠는 온몸이 망가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내 대신 싸워다오…. 저… 저놈 힘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거야….

호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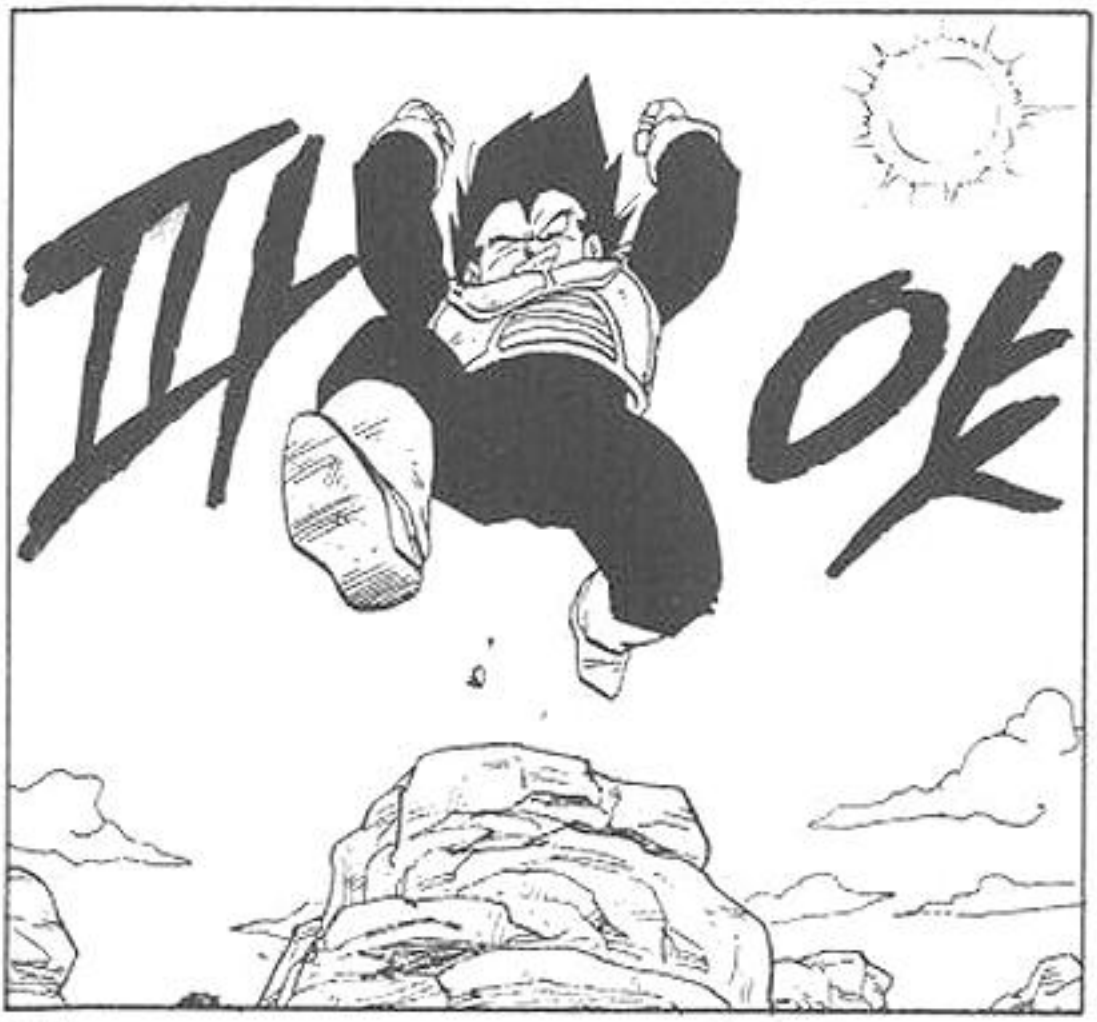
카카로트 자식…, 엄청 끈질기네…. 아직도 의식이 남아 있었니?


다음은 카카로트
아들놈이다!
그 다음은 좀전의
대머리 꼬마한테
끝장을….
좋아,
이렇게 하자!
순서는 말야
우선 카카로트부터
죽여주마!


나…, 난
이길 수
없다구….
아… 아빠…
아…, 안 돼…
저놈은 너…
강해…


네…
네 힘은
더욱 더
강할 거야….
더욱….
못…, 이겨도
좋아…
노…, 놈들을
잠시 막아줘…


히이이익!
기억하고
있었네!
마지막
감히 내 꼬
자른 놈이다


파오


그…
그 다음에
크리링한테
놈을 끝장내도록
만드는 거라구….

피…
피콜로한테
대체
뭘 배운
거야…!

이… 이 바보
자식…!
죽어간 모두를
개죽음으로
만들고 싶냐…!?

나…
나도 이젠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안 돼…

으…
으윽…

우아악
…!

끄아아악
!!

크윽!

오…
오반…!

덜 떨어진
쓰레기
하급전사
주제에
사람 귀찮게
만드는군….

……

쿠!!

그만둬…!

우하하
하하…!

그…
그만…
헤…!


그만
해—!!


널….


아니!?


네가
감히
나를….


퍼엉
휘익
휘아아아앙
욱!

이게
뭐야!?

크~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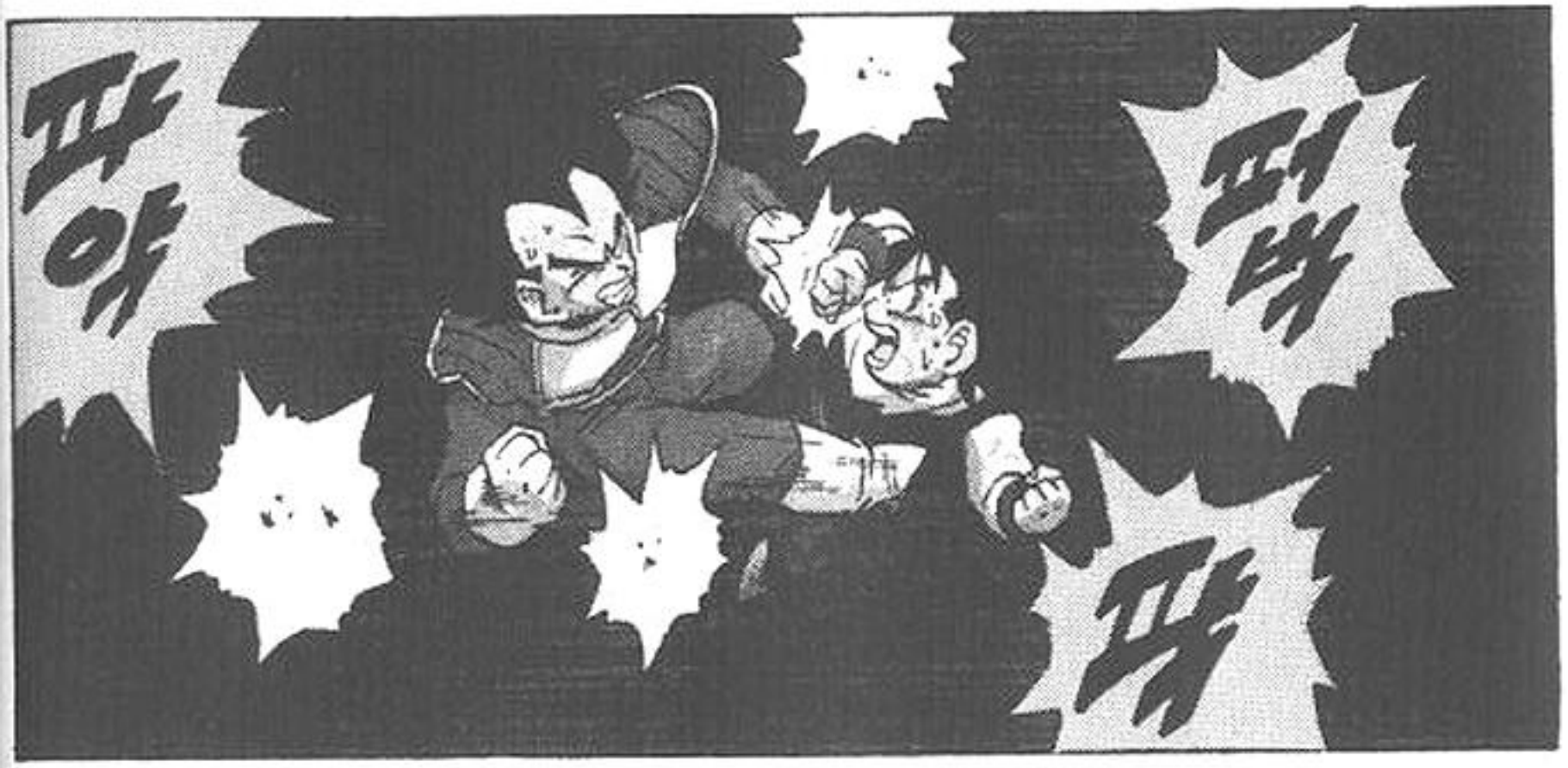
크…
크리링…!

크리링,
부탁한다…!
이리 좀
와줘!





다음은, 제237화 다시 한 번 원기옥!!


팡야
퍽
팡


바…, 반 정도는 빠져나가 버렸지만, 지금 저놈 상태라면 쓰러뜨릴 수 있을 거다….
워…, 원기옥…. 지구 전체에서 조금씩 모은 기야….


크리링…, 내 손을 잡아다오….
뭐… 뭐야…!?


빠, 빨리…! 오반이 죽겠어…!
뭐…. 뭔 소린지 모르겠네….


퍼
퍽
나… 나한테 뭘 넘겨 준다고…!?
뭐… 뭐라고…!?


소, 손만 잡으면 돼…!?
부탁 한다…!
퍼억억
이… 이렇게?
아윽!
너, 너! 뼈가 부러졌잖아!
돼…, 됐으니까 그대로 손을 놓지 마…!
……!?
주…, 줄 테니까 받아줘….
부우우 웅!!

대…
대단해…!
어, 엄청난
기야…!

그… 그걸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집중시켜줘….
구슬이
생길 거야….

빠 빠
작 작

이…
이게
뭐지…!?

우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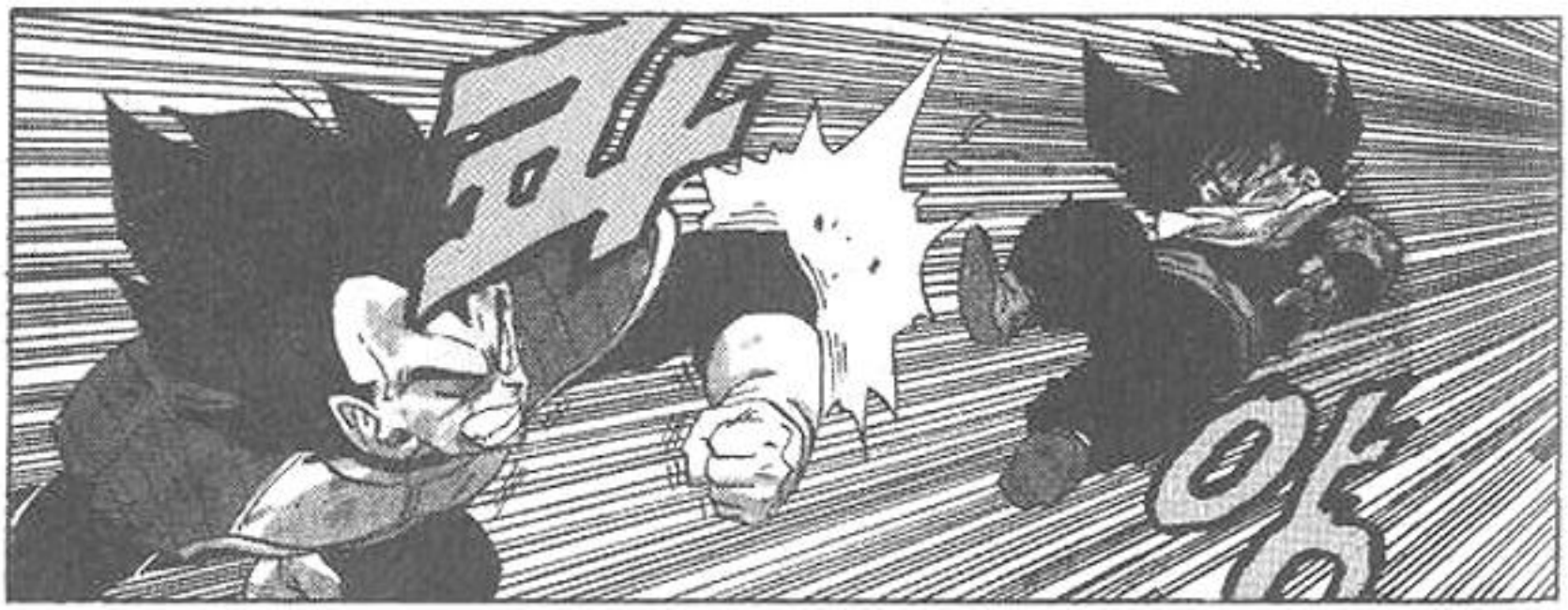





크으으윽
…!!


파앗
끈질긴
꼬마놈!


나…
나왔다…!
이… 이게….
원기옥이야….
자…,
잘했어~!


파앗


더… 더이상
원기옥은 만들 수
없어….
그… 그러니
꼭 명중시켜야 해….
부탁한다…!
크리링…,
그… 그걸
놈한테
한방 먹여…!

저…, 정말 강하다…! 아빠랑 싸우느라 엄청 지쳤을 텐데….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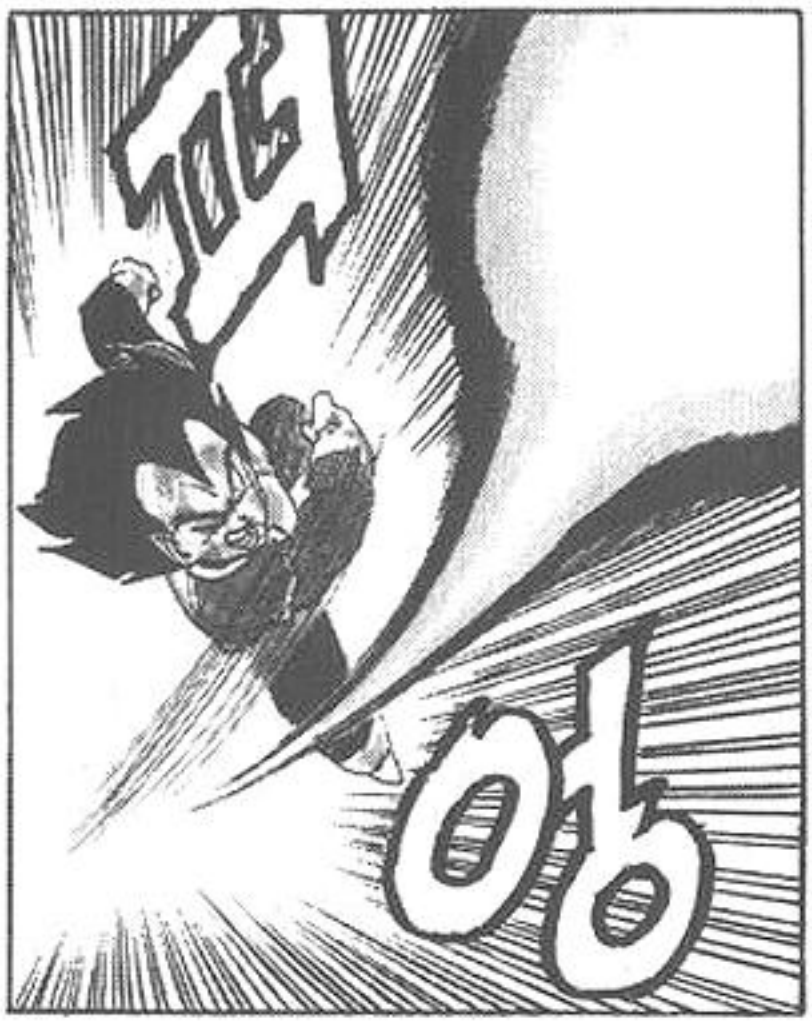
아…, 알았어…!

해 볼게. 날 믿어줘…!

슬슬 한계가 오셨구만!!

대단한 꼬마지만….

탁


퍽


파앗


으윽
윽!!


퍽


타닥


홍!
마지막
발악이냐!?


!!


끼앗




원기옥은
눈으로 보고
명중
시키는 게
아냐.
악의 기를
느끼며
발사해라!
!?


제…
제길~!
저렇게
움직이는데
내 실력으로
어떻게
명중시키냐…!


너의 그 일격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손오공에게 원기옥을 전수한 계왕이다.
그 원기옥은 지구 전체의 소망을 모은 구슬이란 걸 명심해!


누….
누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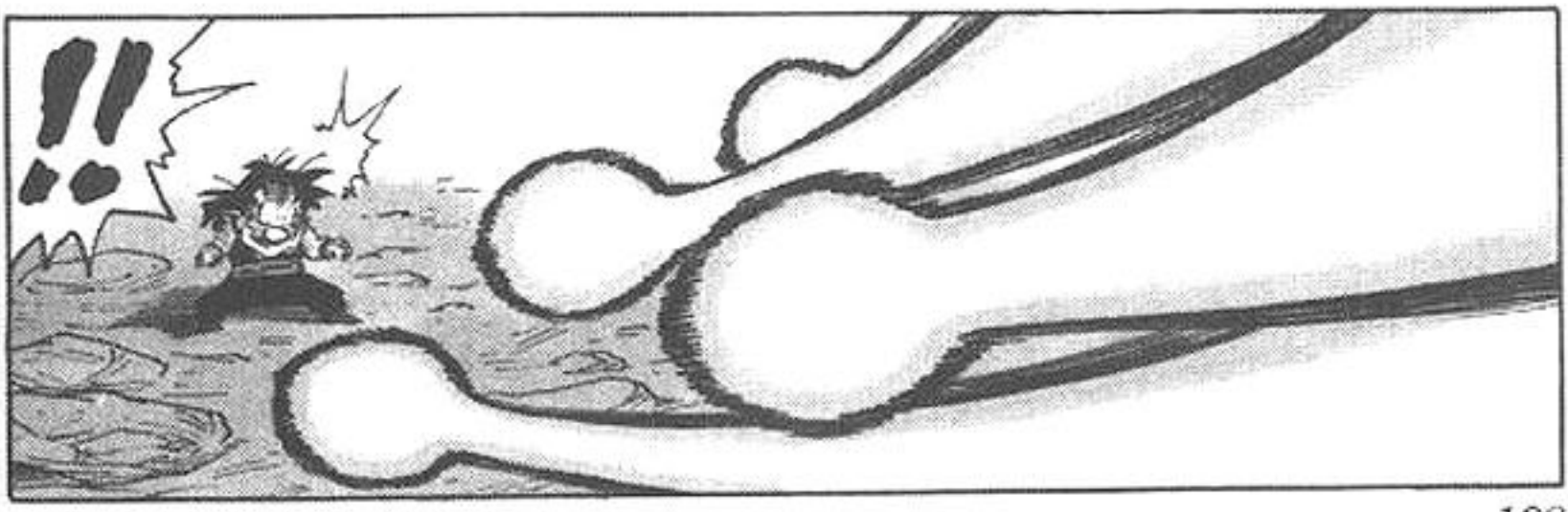

꿀꺽
계…
계왕님…!?


악…
악의 기를 느끼며 던진다….
그…
그렇구나….


후후후….
벌레들이 트럭으로 덤벼도 어차피 엘리트한테는 쑥도 못쓴다는 걸 느꼈을 땐 이미 늦은 것 같구나.




……!!
ドドドド


!!


푸하하
하하
…!!
……!

으악!

느…
느껴라…!

저놈의
악의 기를
느끼는
거야…!

어서.
크리링…!

하려면
빨리
하지
뭐 해!

저… 저 녀석이
뭘 하려는
거지…!
무지막지한
기네…!

이으으…

으…

아으윽…

네놈의
멍청한
자식의
최후다－!!

으하하하!
잘 봐둬라,
카카로트!

잡았다!

뭣…!?

그걸 빨랑 쏴야지!

뭐 해, 이 멍청아!

저, 저 바보가!

첫!

이런 제기랄 —!!

!!

욱!?

맞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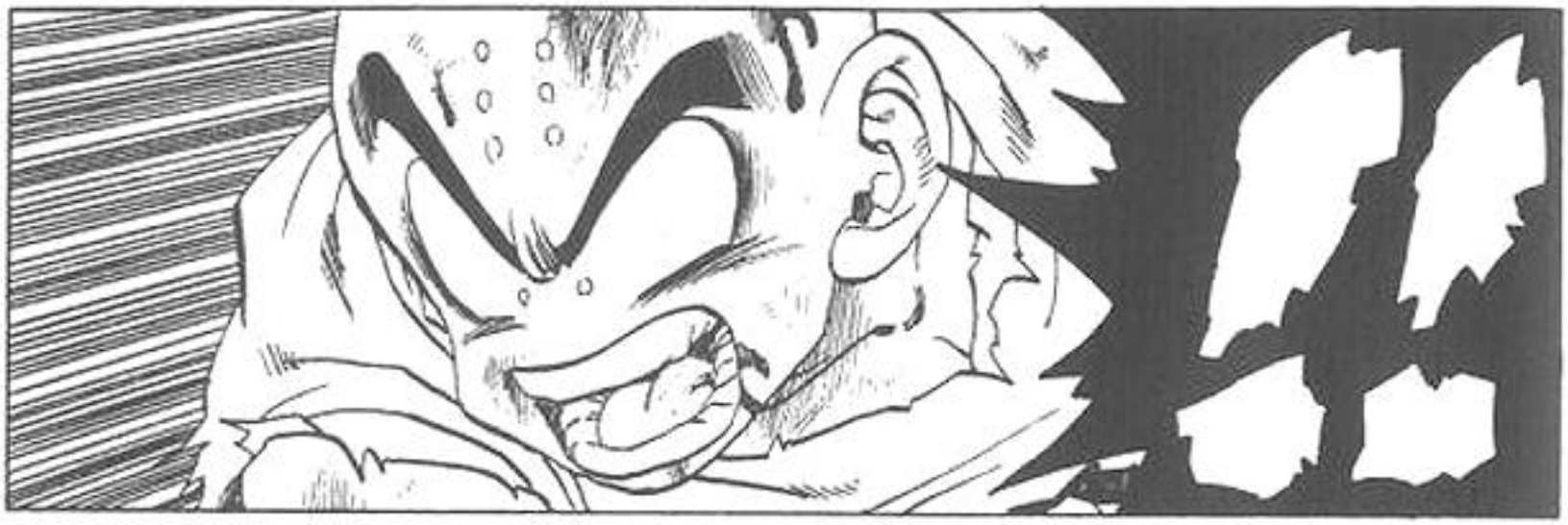
빌

하앗!!

이건 뭐지!?

다음은, 제238화 원기옥의 행방!!


먹어
버렷— !!
하—앗!!
크, 큰일
났다!!




윽!

!!

빗나
갔어!!


이젠
끝장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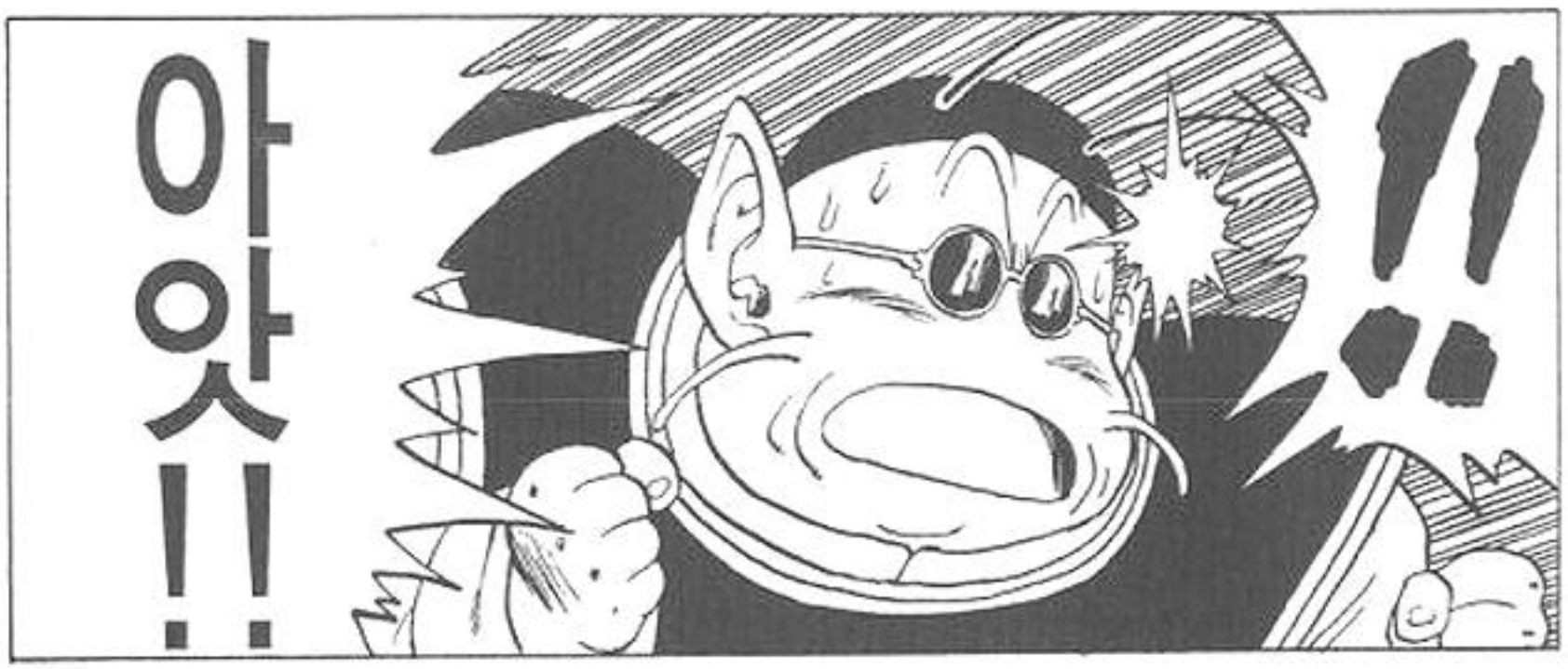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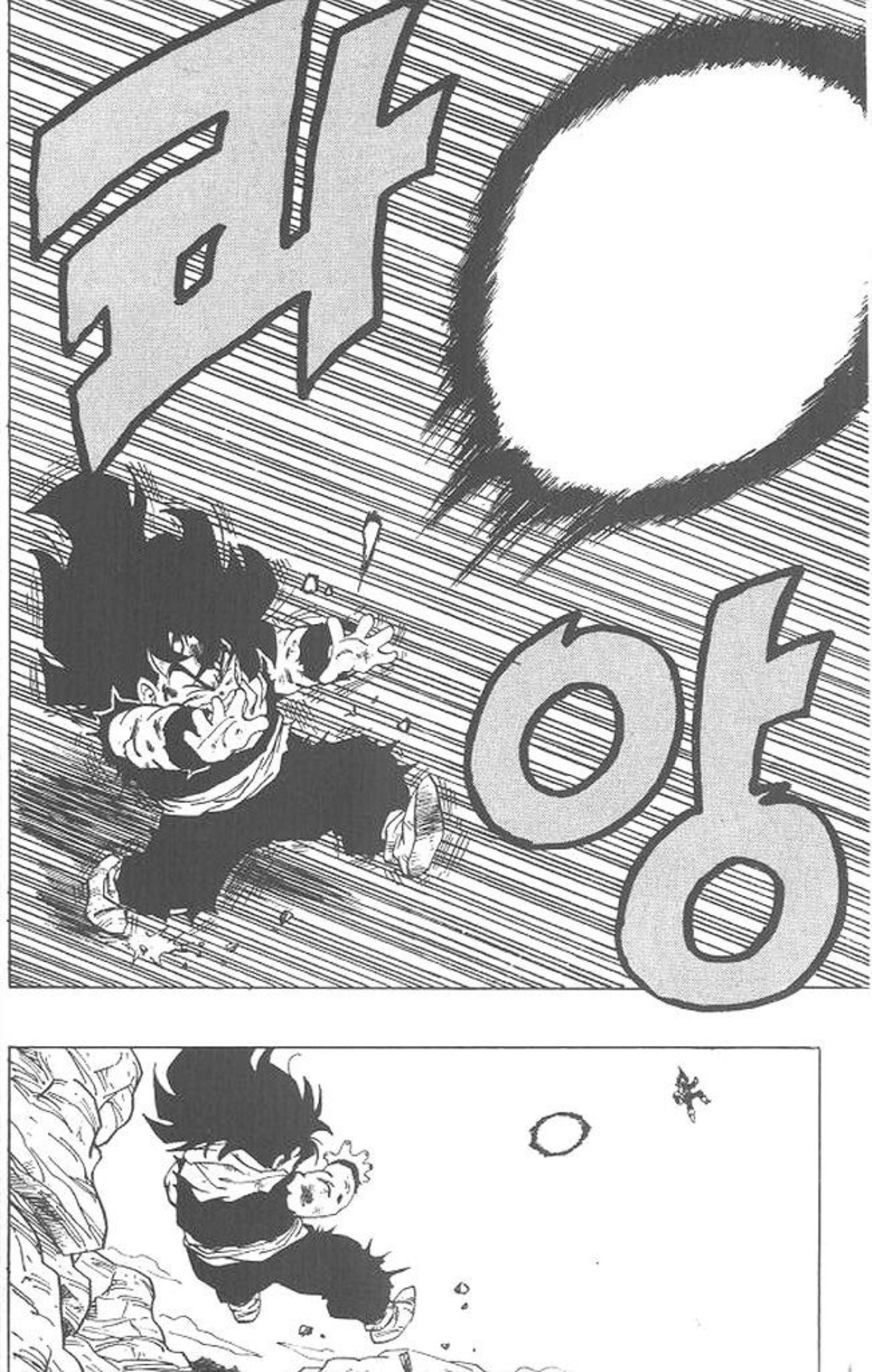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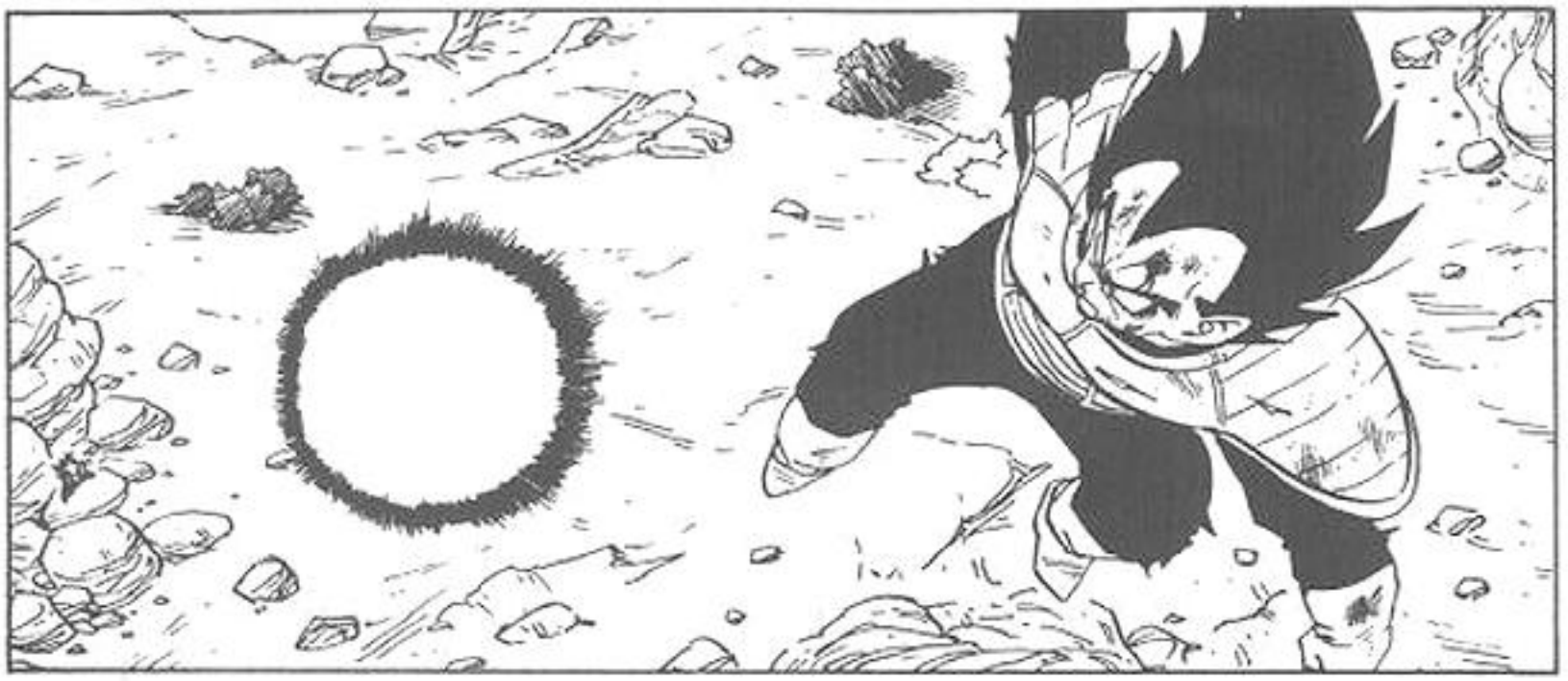
앗!


악의 기가 없는 자라면 되받아칠 수 있을 거야!
오반, 되받아쳐! 그건 우리편 우기다!


크아아!!


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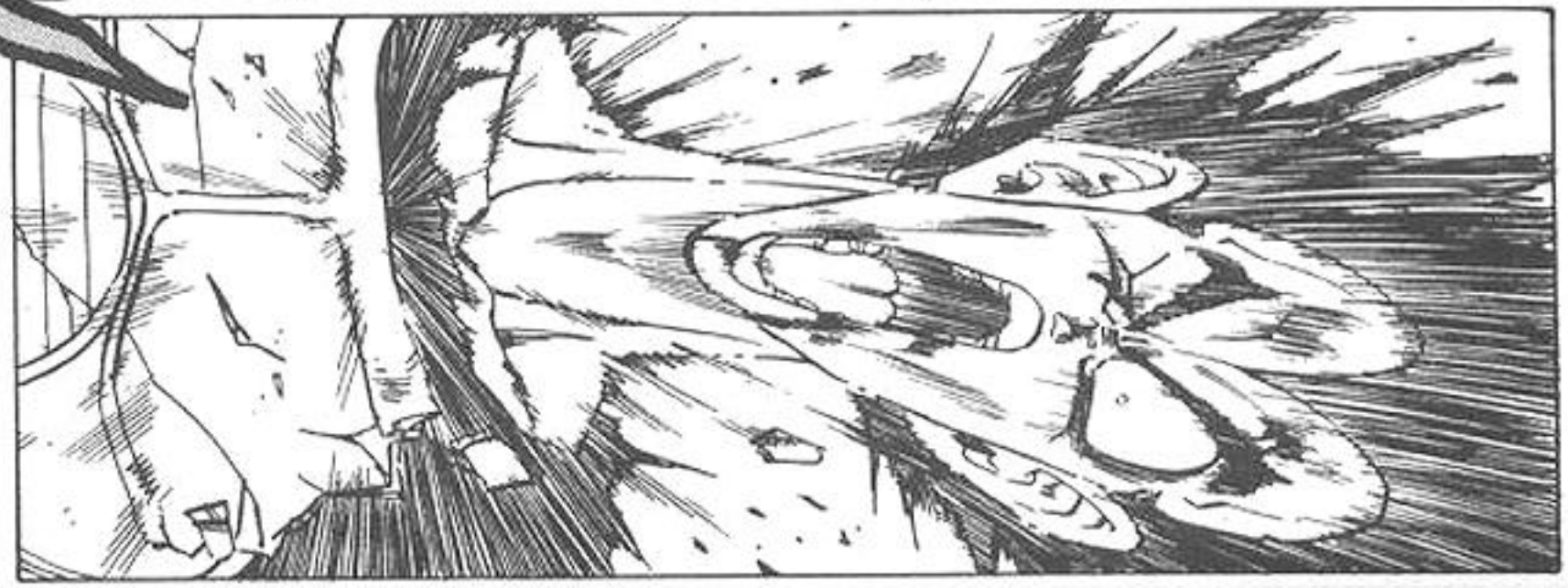





크아아
아악~!!


OOO






삐삐삐삐


허…
허이익…!!


꺄아아
우아아…!


끼잉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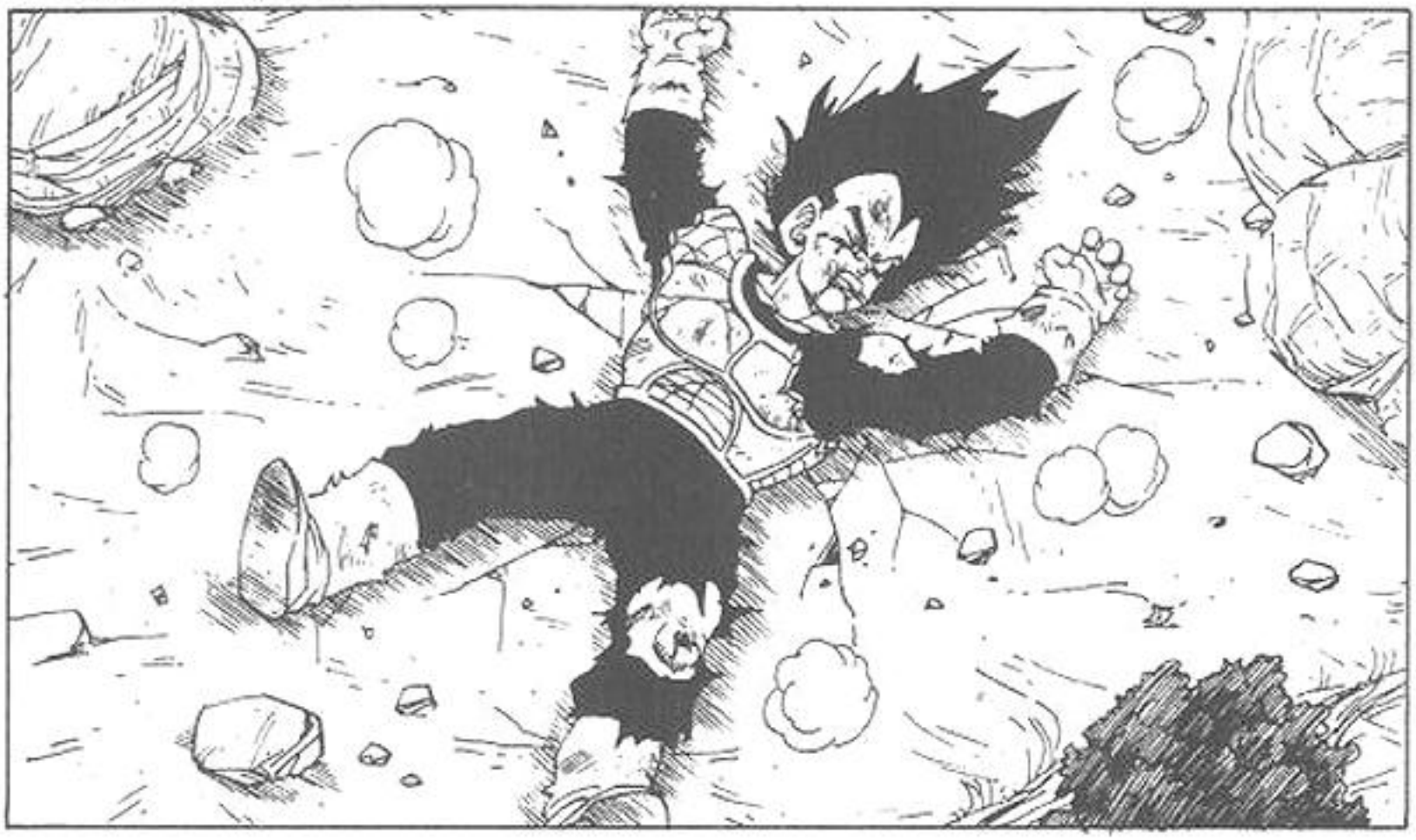

으아아아아악…!!
아….
아….
성공이다—!!


휴우….
헉
헉
하하….
이야호!!
해냈다!!
성공이야! 하하!
해냈어, 오공!
휴우…!
아빠!
훌쩍
비틀
비틀


헤헤….
둘다 몸이
상진창인걸….
정도는
니지.
하하….
난 모든 게
끝장난 줄
알았어….
너희들,
결국
해냈구나….


어!
!
앗?


털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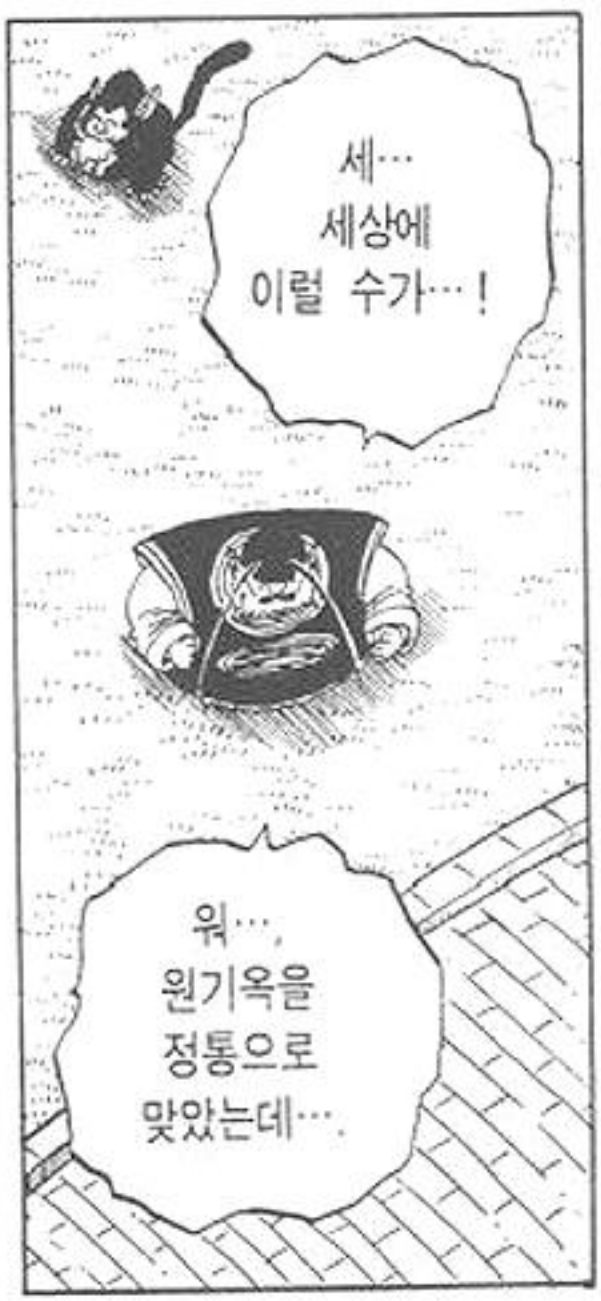

제길…. 정말
엄청난
놈이었는데….
묘라도
만들어
줄까…?


사,
사이어인이
…!
괜찮아,
시체니까.


네놈들
묘 말이냐!?






세…
세상에
이럴 수가…!
워…,
원기옥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헉
헉
날 이렇게
지독히 고생
시키다니….
이…
이번엔
나도
죽는 줄
알았어.
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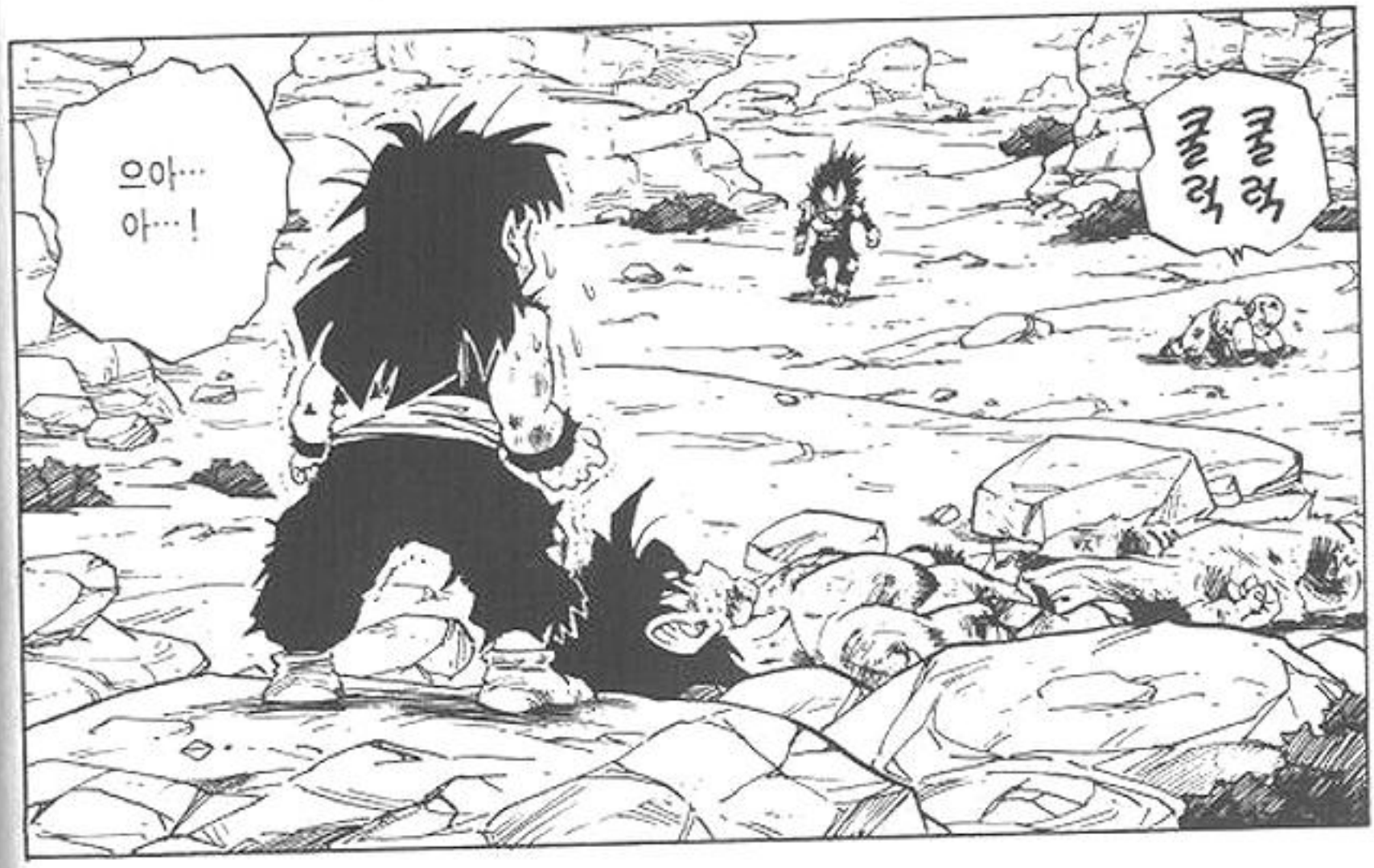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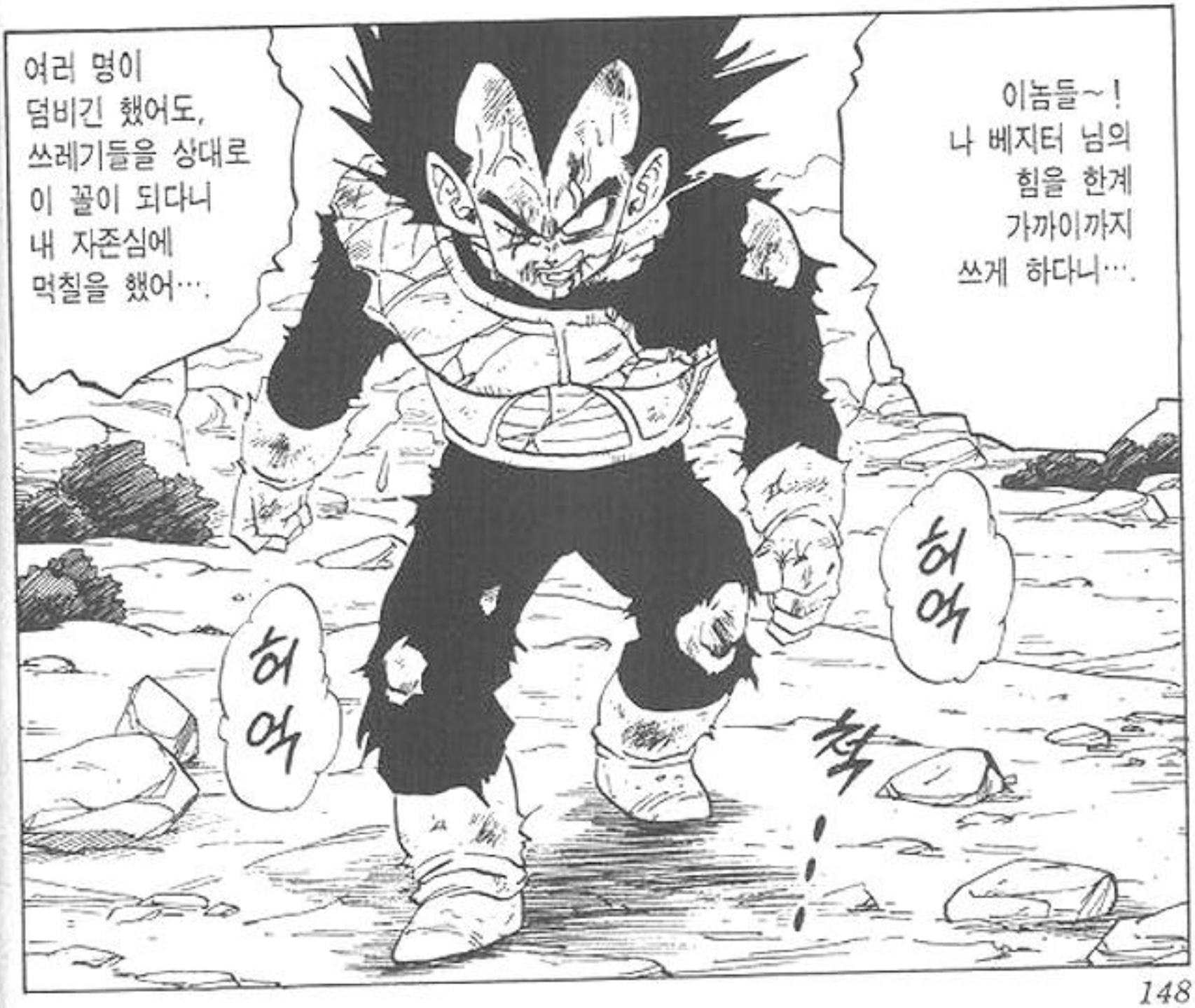






다음은, 제239화 엉망이 된 전사들


으아…
아…!
쿨럭
쿨럭


여러 명이
덤비긴 했어도,
쓰레기들을 상대로
이 꼴이 되다니
내 자존심에
먹칠을 했어….
이놈들~!
나 베지터 님의
힘을 한계
가까이까지
쓰게 하다니….
허
어
허
어
철
!

제… 제길…,
이럴 수가…!

덜덜덜덜…

사라져
버려라…!

이제 그만
까불고…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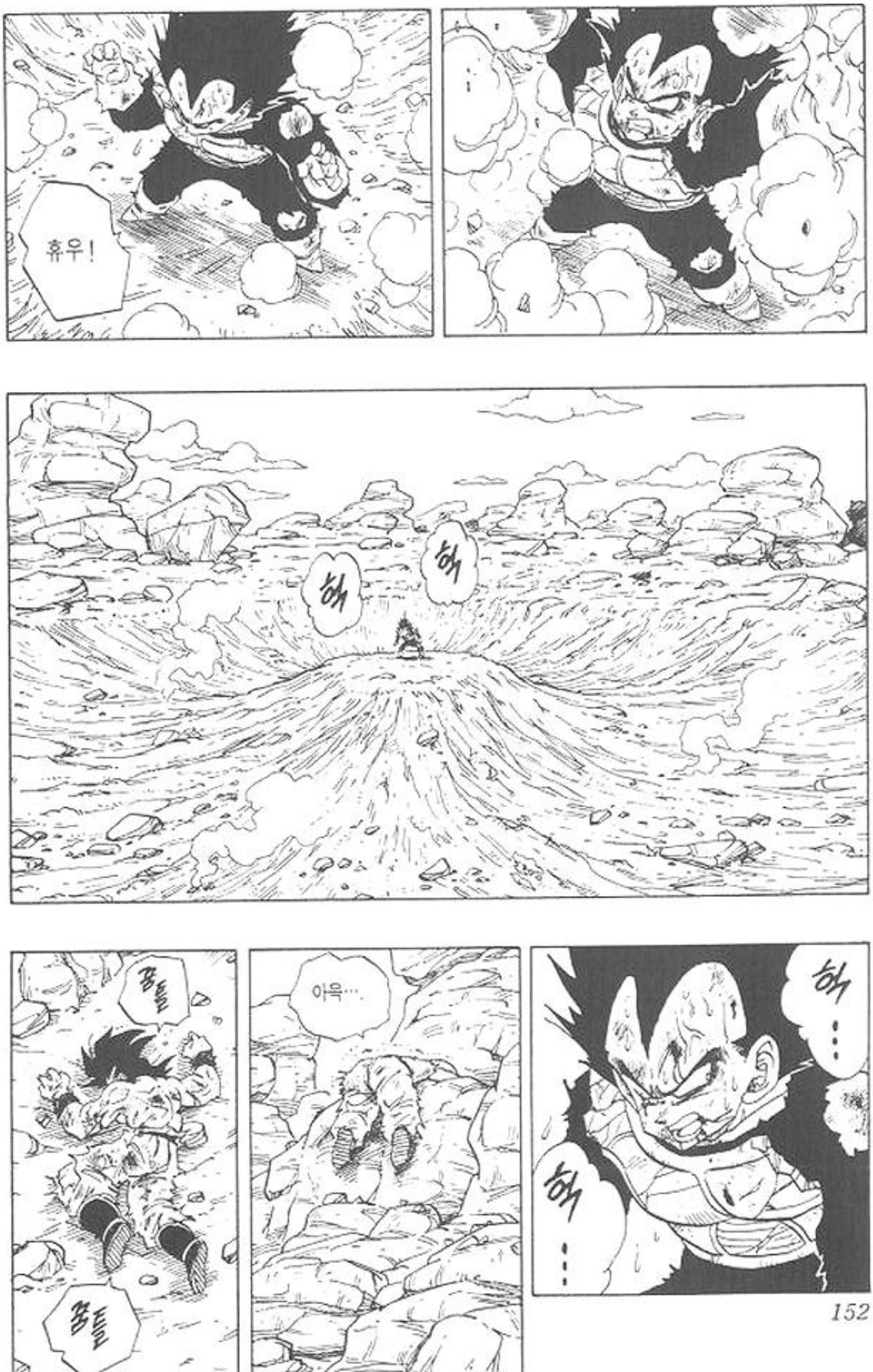

LIFE OF HOPE


으아아
아악
~!!






쾅
쾅
쾅
쾅


휴우!
하
하
하…
하…
아윽…
쿵틀
쿵틀

세 놈 다 살아 있다니….

헉

헉

제… 제길…! 정말 내 힘이 형편 없어졌군….

으… 윽….

큭…!

비틀…

빠…, 빨리 얘들을 처치하고 좀 쉬어야지….

탁

새…, 생각보다 충격이 큰데….

비틀 비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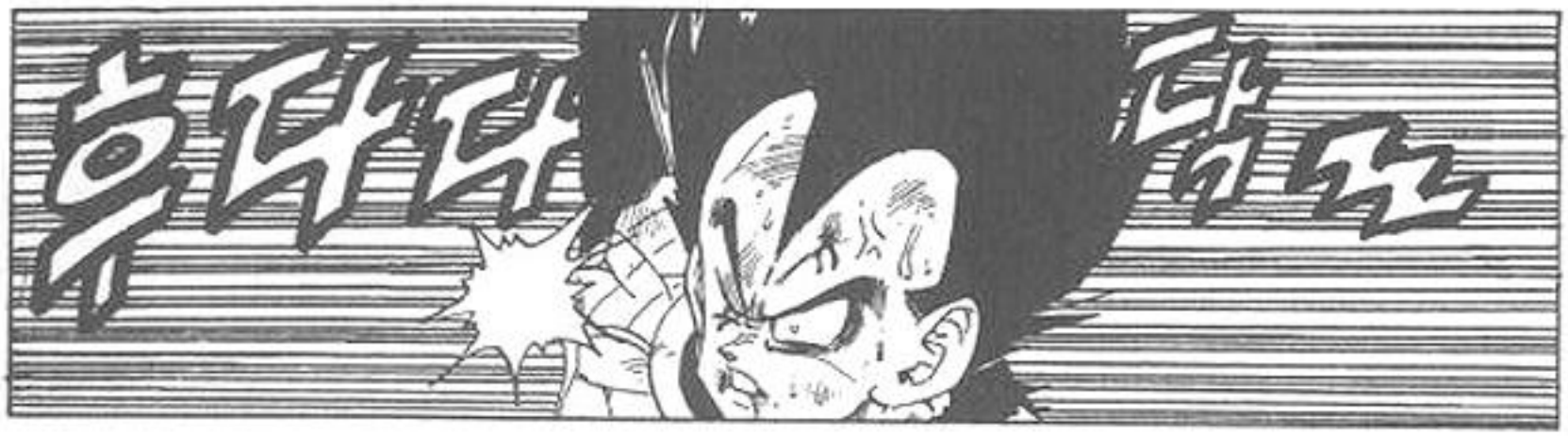
크으…
으으…

이, 이 꼬마놈
꼬리가
재생
되었잖아…!

꼬… 꼬리가! 그래…
오… 오공도 옛날에 갑자기
꼬리가 다시…!

변신이라도
하면 큰일
이다…!

합!


안녕!!


아니!?
!?




이야—
압!!




큭…


턱…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이 멍청한
놈~!
꼴 좋다!
이 바보 놈아!
으헤헤헤헤-!
으하하하!
해치웠다!
드디어
끝났어!

어!?

크으…

네까짓 놈이 나 야지로베 님을 당해 낼 수가 없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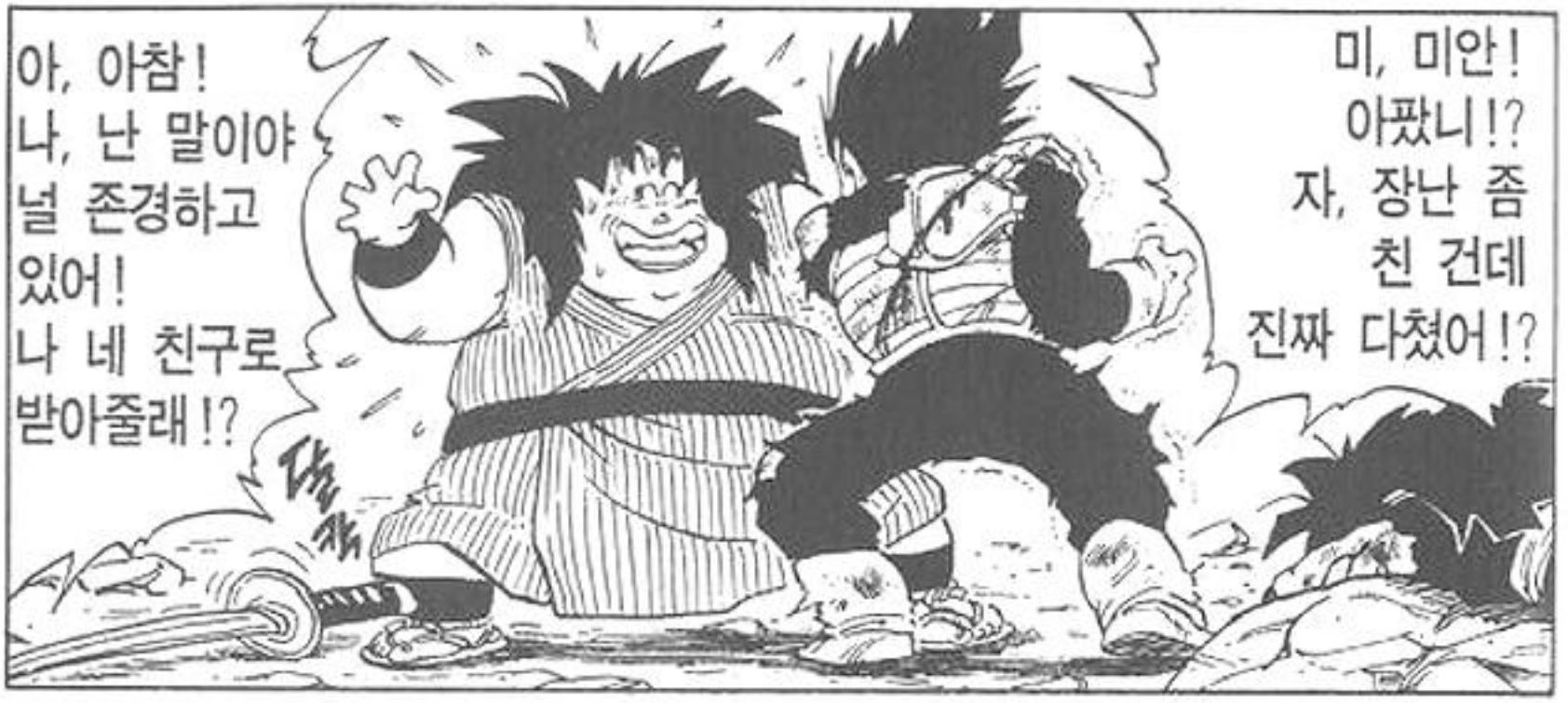
맛이 어때!?

히익!
힉!!

너… 너, 이 빌어먹을 자식이…!

허어

허어


아, 아참!
나, 난 말이야
널 존경하고
있어!
나 네 친구로
받아줄래!?
미, 미안!
아팠니!?
자, 장난 좀
친 건데
진짜 다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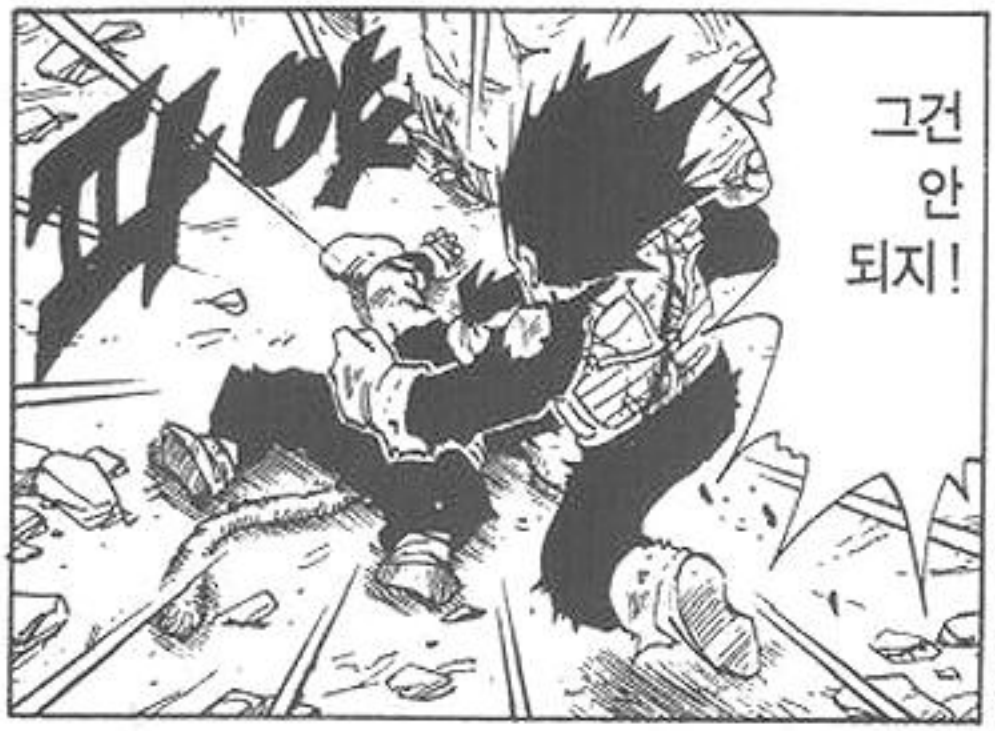

데굴 데굴
크악!!


퍼억


헉
헉
허이…
이이익…!


퍼억


쿠과광
꿈틀
꿈틀…
헉헉…, 용서할 수 없다…!
제… 제길…
달칵…
오반-!!
하늘 이다…! 하늘에 있는 빛의 구슬을 봐라~!
!!
콰당
하… 하늘…?













다음은, 제240화 최후의 도박!!


퍼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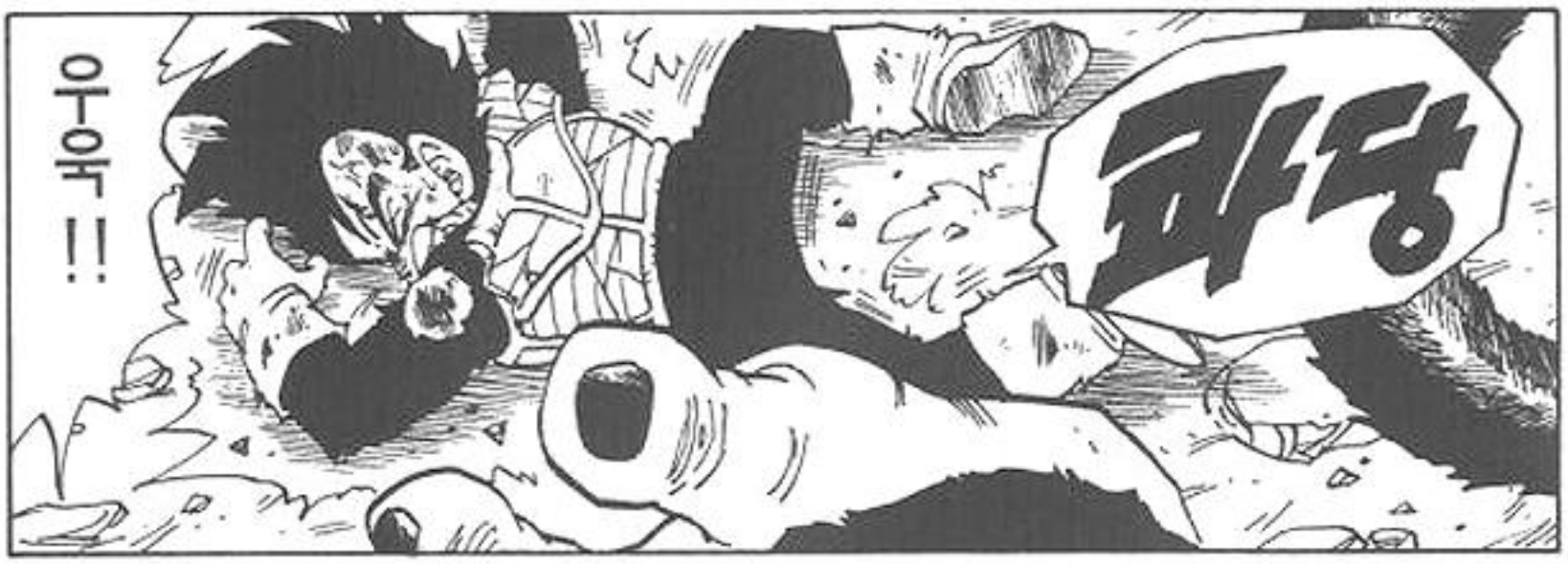

거대화는 안 돼!
이, 이 꼬마가…!
퍼엉


큰일났다 -!!
크….


죽여야 해…!
지, 지금 빨리!


부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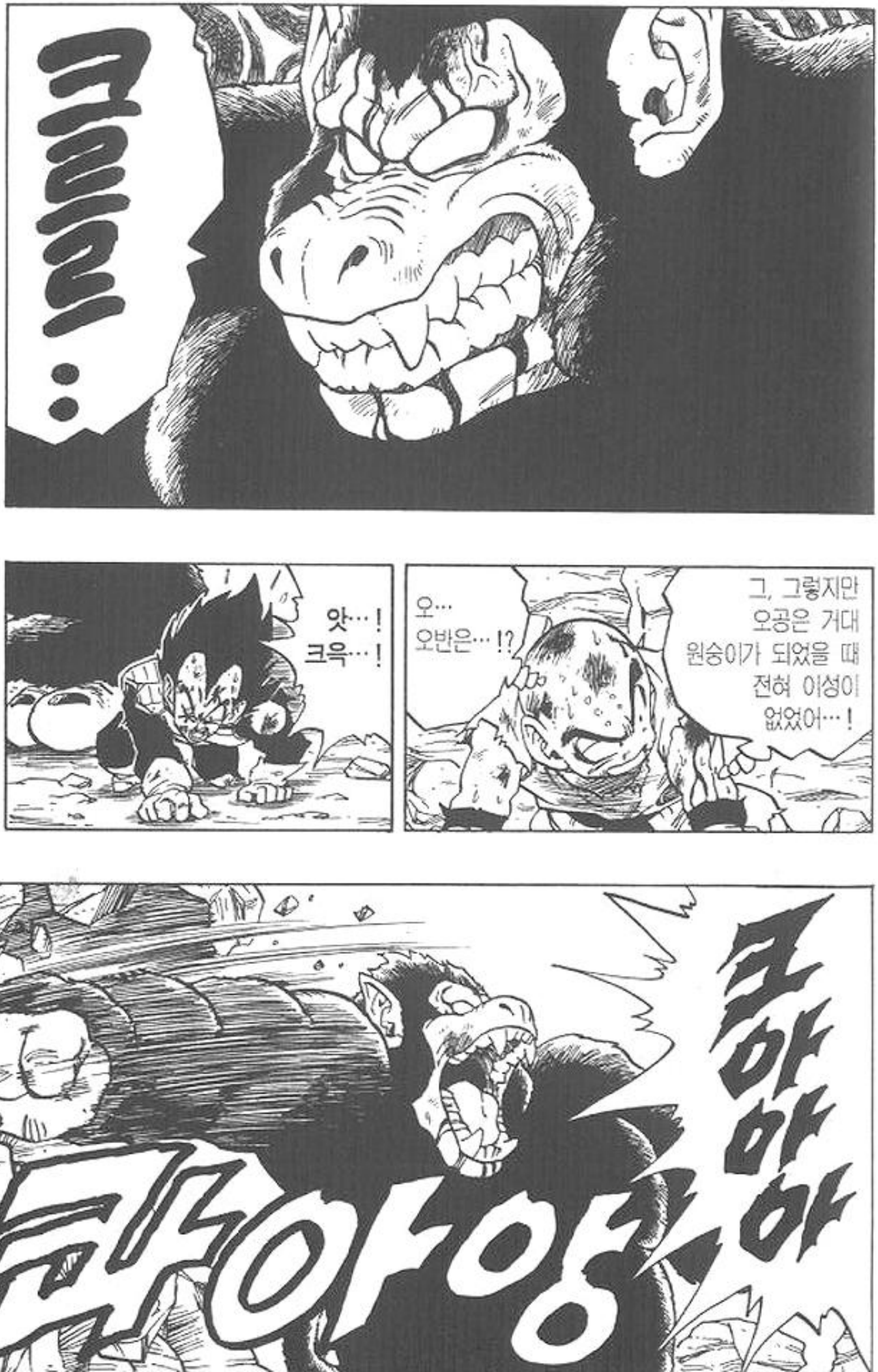

오반…, 부탁해!
거… 거대 원숭이…?
모… 모 아니면 도의 도박이다…!
그… 그래! 꼬리다 …!
당황해서 중요한 걸 까먹었어 …!
꼬리만 자르면…!
끄으 으응~!!
크아아 아…!!


아아악 !!
퍼엉




크르르 ....


키오오오 !!


크르르…
그, 그렇지만 오공은 거대 원숭이가 되었을 때 전혀 이성이 없었어…!
오… 오반은…!?
앗…! 크윽…!
크아아아
콰아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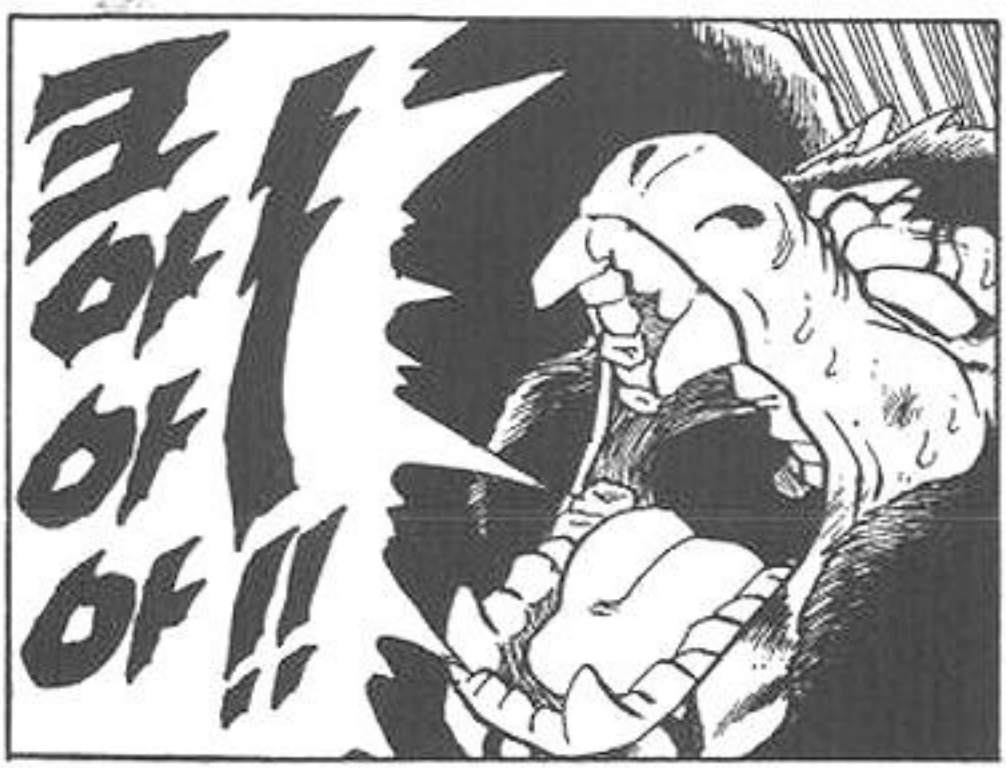
그… 그래…. 오공과 오반의 이성이 없어 진다기보다….
거대 원숭이가 됐을 때만 사이어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 오반도 마찬 가지네!
히이익!!
크아오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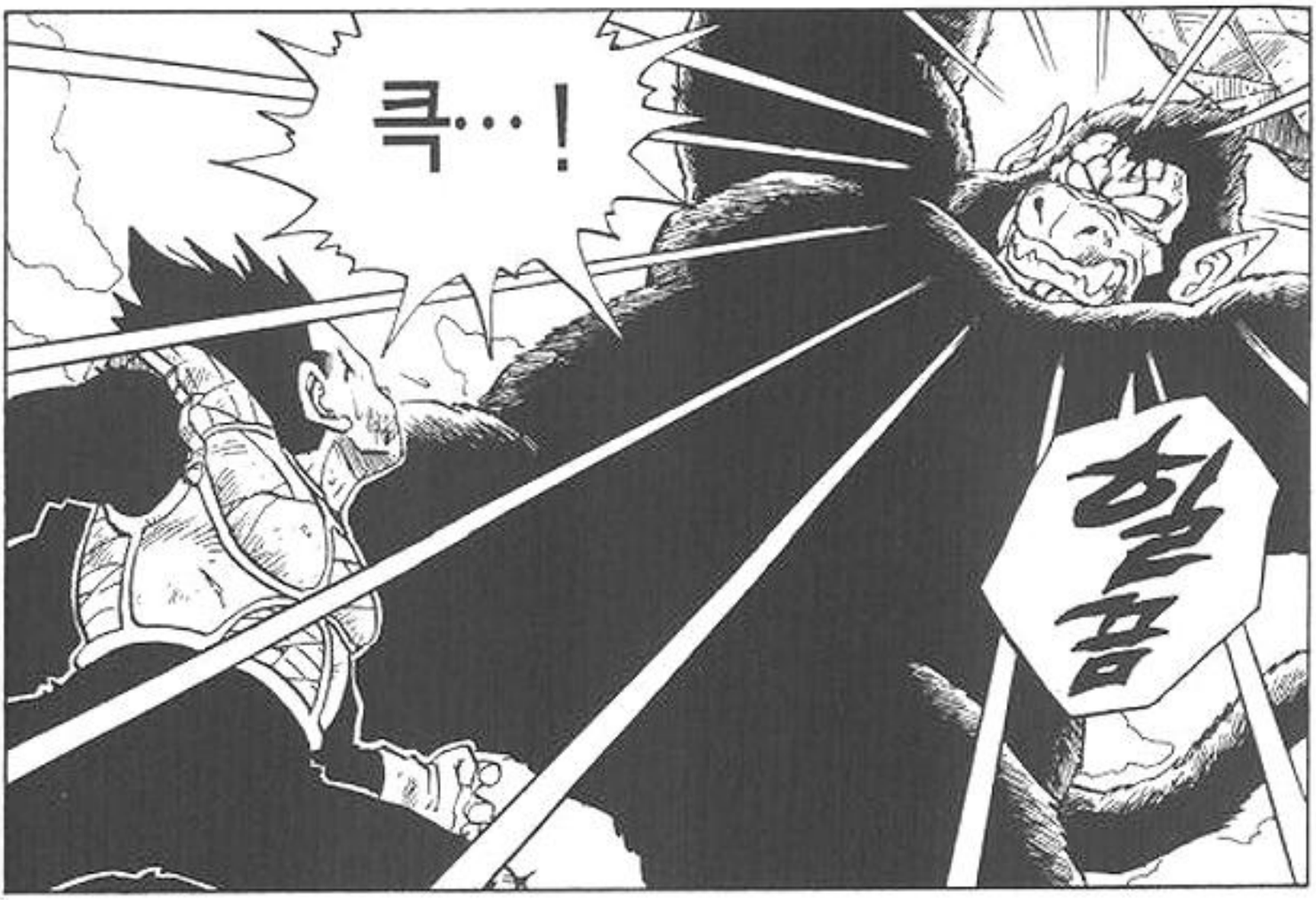

저…
저놈이…!


오,
오반…!
사이어인이다…!
사이어인을
처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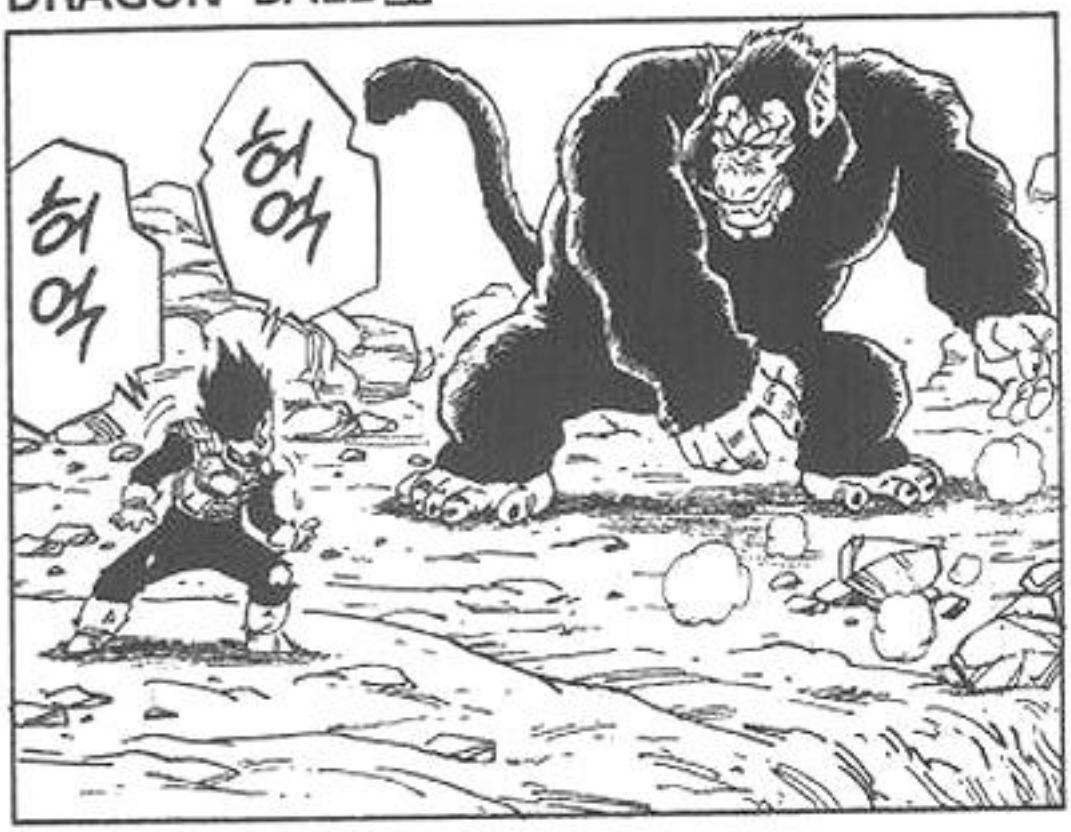

우…
우가…
우가…


크아아아!!


오…
오반…!


크…!
할끔


파앙


헉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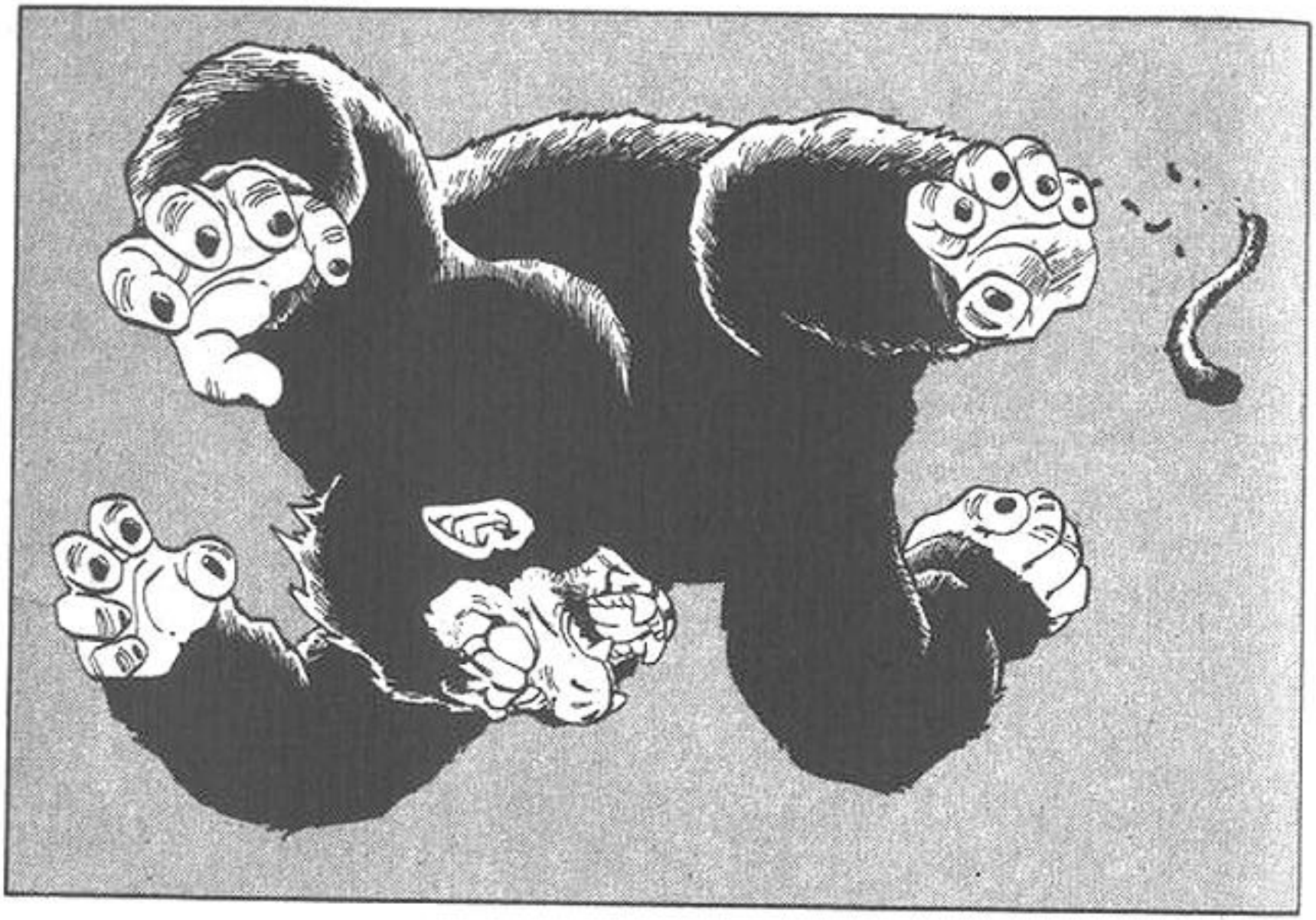

그래!
저…
저 녀석의
반은 지구인
이니까!
자…, 잘한다!
조금은 오반의
마음이
남아있어…!


내… 내가 만든
달은 앞으로 1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여…, 역시 꼬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
헉
헉
비…, 빌어먹을…!
이… 이 부상만
없었다면 저런 놈
한, 두 마리는…!!


하앗!!


파앗

빌어먹을
자식-!!




모…,
몸이….
안
움직여
…!




…!!

파.....앙

아....

아....

.....!




부르르…


으…
아윽…


헉!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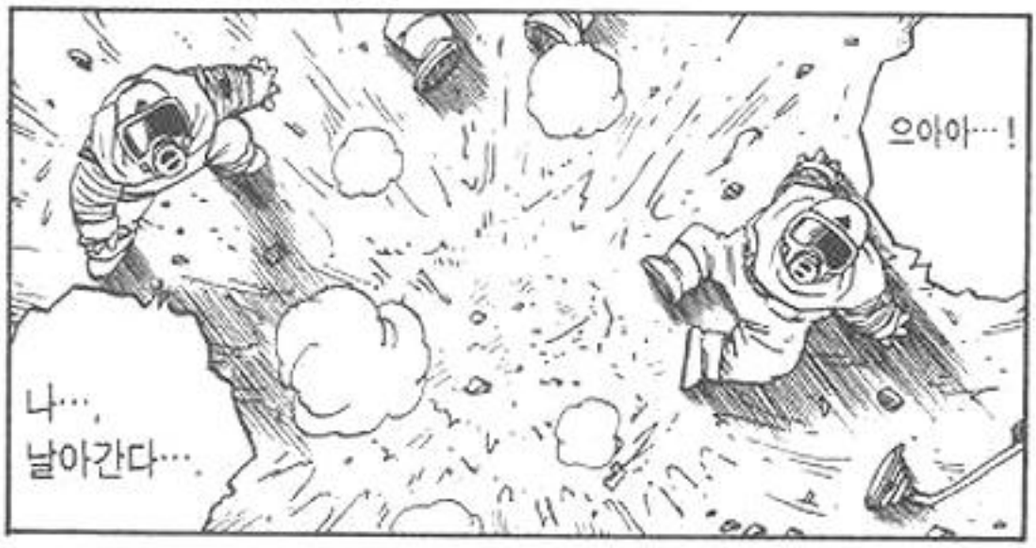

아우
우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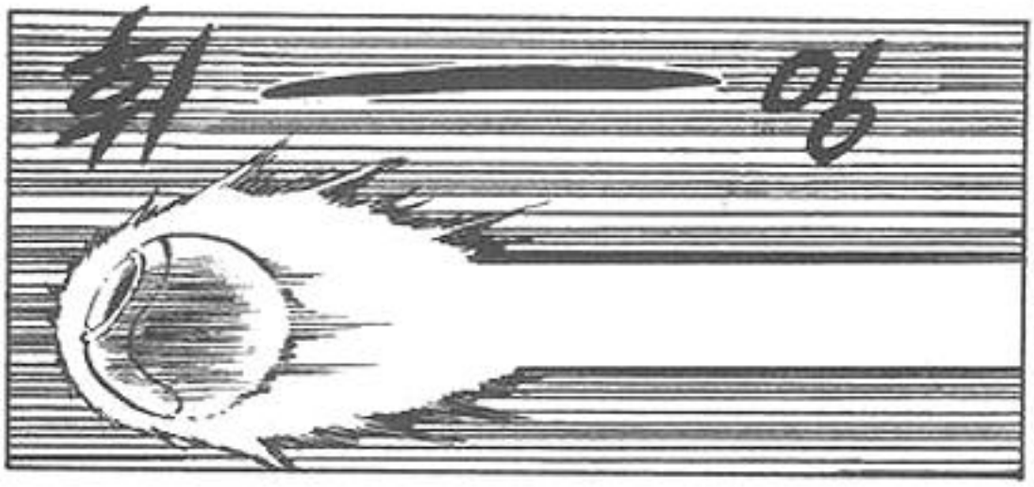

저…, 정말
질린
놈이다….
저…
저놈,
불사신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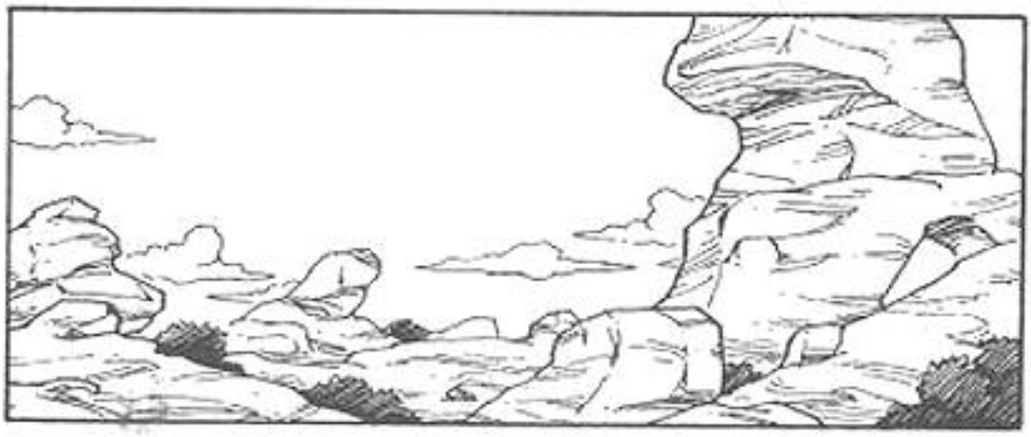

헉
덜썩
헉
헉
헉


삐삐삐…
헉!
헉!


사이어인들에게 괘멸당한 동쪽 도시….
여…, 역시 이 도시에 남아있는 건 이 두개의 묘한 구슬뿐인 것 같습니다요….
그… 그렇지만, 상황 판단을 해볼 때 이것 때문에 도시가 폐허로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무리 봐도 타고 다니는 비행체 같아….
삐빡
어…!?
왓!!
부우웅


으아아…!
나…,
날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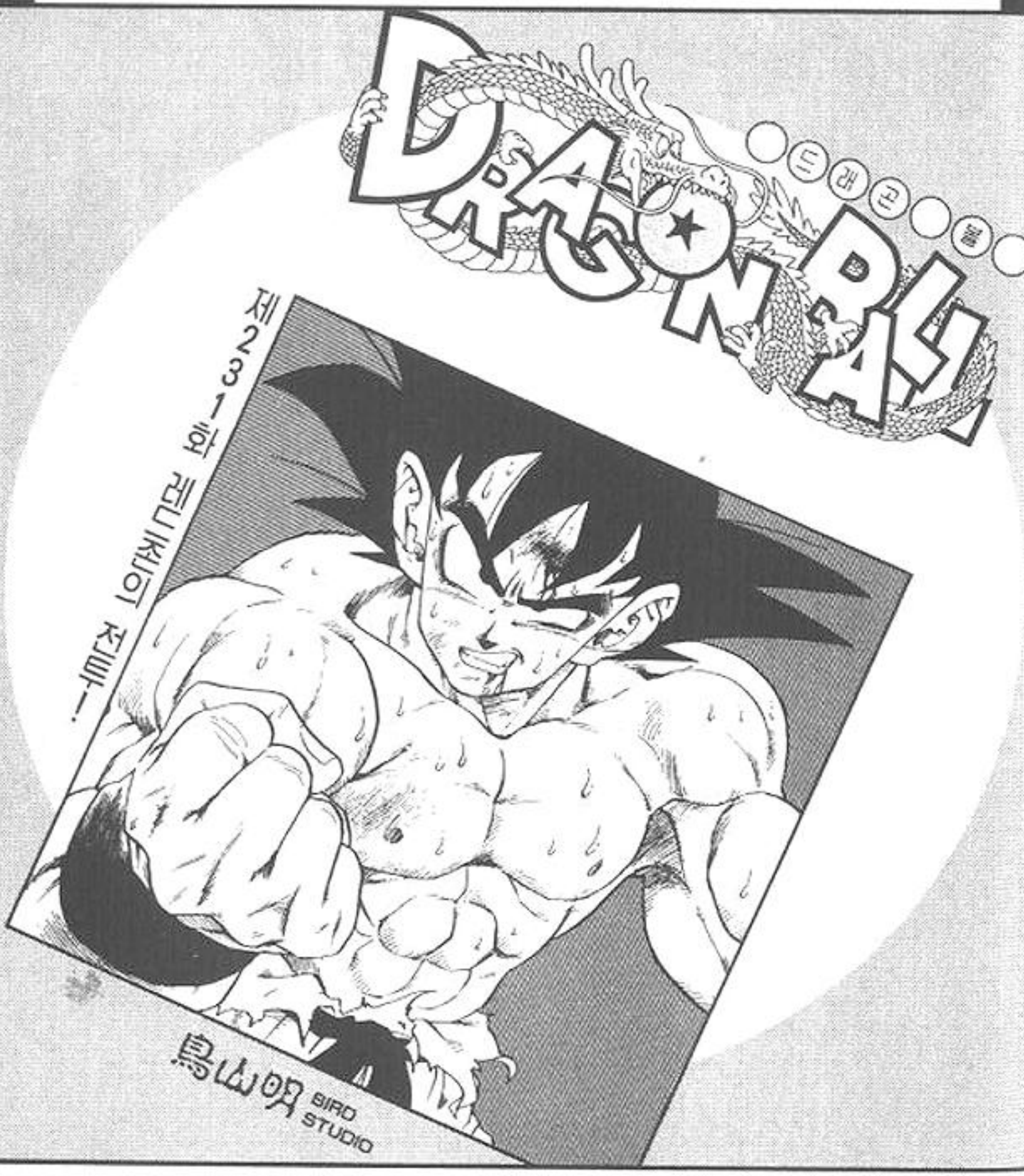

휘
잉




후…
후퇴하는
일이 생길
줄이야…
가…, 감히
내가
설마…


21

표지 페이지 대특집XIX



마침내 지구를 포기한 베지터! 처절한 사투도 우선 종결!!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드라마의 개막식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우선 주간 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232화 「달」



DRAGON BALL

제233화
원기옥 발사는 가능한가!?

鳥山明
BIRD STUDIO





승부!!!

DRAGON BALL

제234화 원기옥은 어떻게!?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235화
파리목숨 손오공!!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236화 희미한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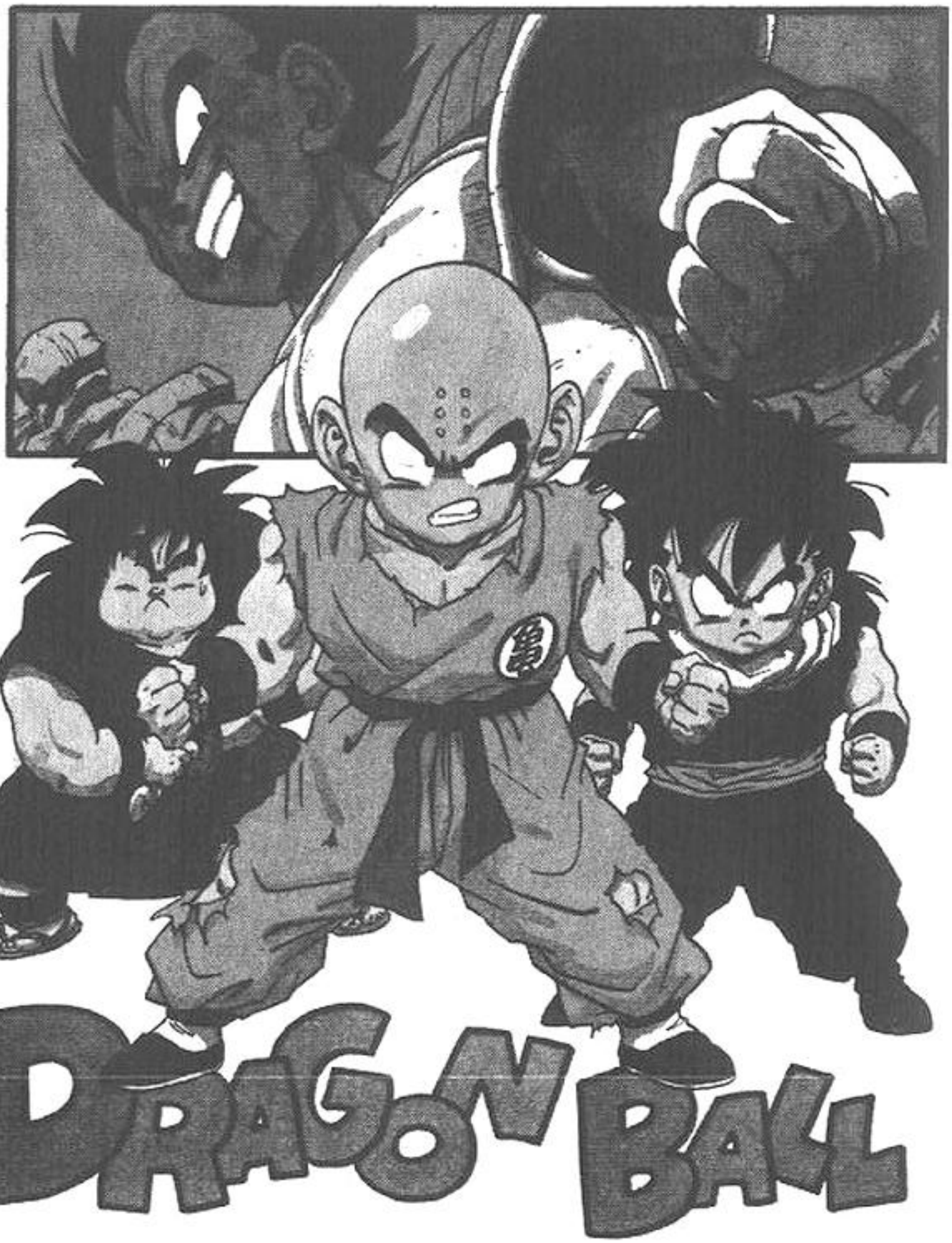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볼

제237화
다시 한 번 원기옥!!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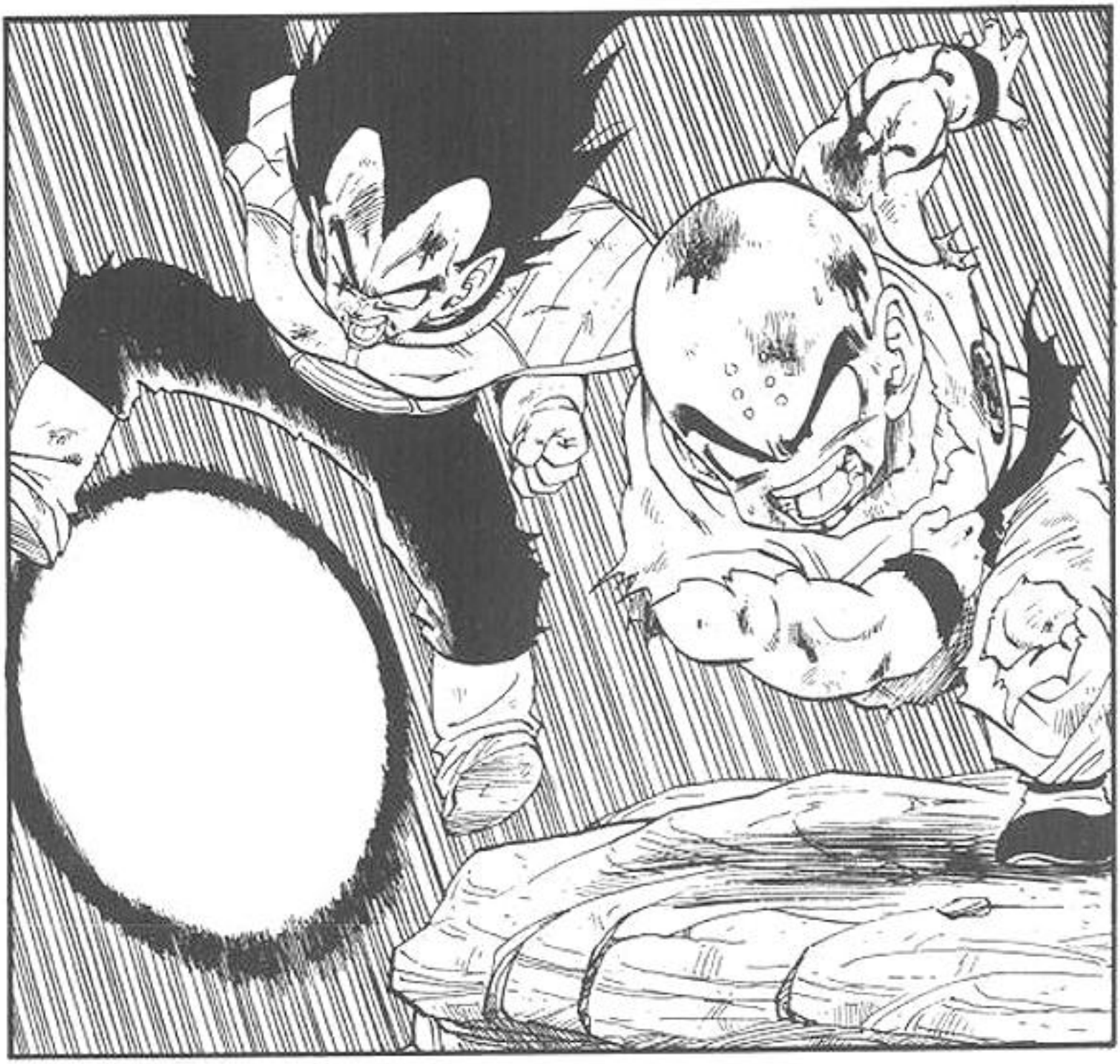


드래곤 볼

DRAGON BALL

raprnb

제238화 원기옥의 폭발!!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DRAGON BALL

scanned by

제239화 엉망이 된 전사들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제240화 최후의 도박!!

드래곤 볼

scanned by raprnb

아이큐 점프 코믹스



2001년 2월 10일 제1판 인쇄
2001년 2월 20일 제1판 발행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백승철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